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39.05	↓ 코스닥	749.59
	(+17.78)		(-0.08)
↓ 금리 (미국 9년)	2.630	↑ 환율 (원/달러)	1452.50
	(-0.008)		(+1.30)

최태원 상의 회장  
“기업, 사회문제 해결  
체계적 접근 필요”



02

## ‘트럼프 관세 피해 한국으로’ 中 유통기업, 韓 공략 본격화

테무, 韓 시장 진출 본격 준비  
주요 부서에 한국인 직원 채용  
통합물류시스템 구축도 검토  
미니소, 철수 3년 만에 재등장

중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유통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미국 수출이 제한되자, 한국을 우회 전략의 거점으로 삼아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한국 시장 직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테무는 지난해 말부터 인사, 총무, 홍보·마케팅, 물류 등 핵심 부문에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테무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출딩스(PDD)’의 자회사로,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웨이코코리아유한책임회사’라는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한국인 직원을 두지 않고 채용 공고도 내지 않아 직진출보다는 단순 직구 중개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 주요 부서에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며 본격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직군에서는 이미 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한국 내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테무가 본사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주요 물류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프라인에서는 중국 기업인 ‘미니소’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브랜드 ‘미니소’는 8년 전 국내에 첫 진출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철수했다. 그러다 철수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중순, 서울 혜화동에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한국 시장 공략을 재개했다.

실제 중국 유통기업들의 한국 시장 내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애플리케이션 및 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연간 결제 추정 금액은 2021년 1조 1103억 원에서 2024년 3조 6897억 원으로 급증했다. 테무 역시 2023년 311억 원에 불과했던 결제 추정 금액이 2024년 6002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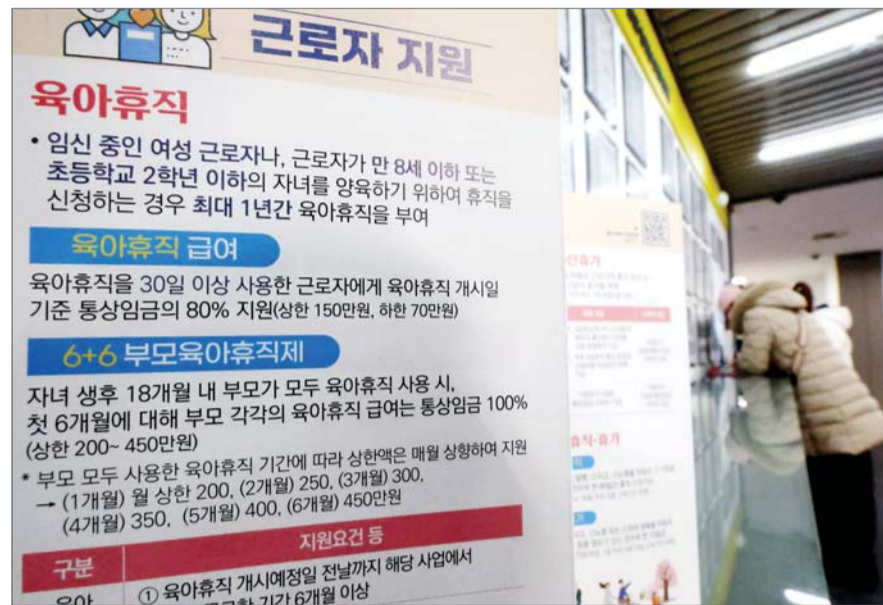
업계에서는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공략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시장을 공략해 우회 전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역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다른 시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 제품들이 내수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시장을 새로운 판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는 담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놨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중국 제품은 품질이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23일부터 ‘육휴’ 1년6개월로 확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뉴시스

## 아파트 줌줍 무주택자만 가능 청약 가점용 위장전입도 차단

### 국토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병원·약국 등 내역으로 실거주 입증 거주 요건은 지자체가 탄력적 부과

앞으로 소위 ‘줌줍’,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규정이 바뀐다. 누구나 조건없이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청약이 과열되자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거주지역 요건도 신설된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과열 양상을 빚은 무

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량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120만명이 몰린 세종 무순위 청약 처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세종시나 충청도 거주 등 조건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l@

## 美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 25% 관세”

알루미늄도 10% 관세 부과  
정부, 업계와 대응방향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알루미늄에도 10%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12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에는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맺은 협정도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 제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 없다”라고 밝혔다. AP/뉴시스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인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인고 본부장과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워터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 수출 여건 변화와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 방향을 업계와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미 철강 수출국 4위를 기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가가 적용되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 263만톤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고 주요 철강사의 피해가 우려된다.

/원승일 기자 won@

## “올 성장률 기껏해야 1%대 중반”

### KDI ‘경제전망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 제시  
시국 불안 장기화 땀 1%대 초반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껏해야 1%대 중반이고 그보다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종전(지난해 11월) 예측인 2.0%에서 무려 0.4%포인트(p) 낮췄다. 이는 12·3 사태 및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른 큰 폭

의 하향 조정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민간소비(1.6%)와 수출(1.8%) 증가 폭이 모두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3%p 내려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발 경제전망과 국내 시국불안이 장기화할 시 1.6%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메트로 한줄뉴스



- ▲ 신원식 “윤 ‘비상한 조치 필요’ 언급… 계엄은 부적절해 반대” /사진 뉴시스
- ▲ 권익위, 거제 등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상공인 고충 수렴

- ▲ 정부, ‘청년친화도시’ 3곳 첫 지정… 관악구·부산진구·거창군
- ▲ 민주 연수원장 “외로운 늑대들, 지체된 의식 가져” 여 “2030에 비뚤어진 인식”

- ▲ “헌재 없애버려” 김용원, 내란 선동 혐의로 추가 고발당해
- ▲ 기재위 소위서 ‘K칩스법’ 통과…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 “기업, 사회문제 해결 체계적 접근 필요”... 보상시스템 제안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ERT 멤버스 데이에서 기조강연  
“취약층 지원,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사회 긴밀히 연결돼 한 부분 붕괴면  
다른 부분도 그영향 피할 수 없어”

“우리 사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그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사회 핵심 문제로 떠오른 ‘미래세대·인구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고 사회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힘을 모아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ERT(신기업가정신협회) 멤버스 데이’ 행사에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통상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AI 등 격변하는 요소들이 많다”며 “이 많은 도전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ERT Member's Day'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태껏 열심히 해왔던 경제적 가치 추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해나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기업이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ERT는 대한상의가 지난 2022년 발족시킨 기업 협의체로, 현재 약 1560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이날 열린 ERT 멤버스 데이 행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에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지난해 1

월 처음 개최된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주요 회원 기업 대표인 리더스클럽 멤버를 비롯해 총 500여 명의 회원 기업 임직원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누군가는 돈벌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문제도 같이 해결하라는 것인지는, 미루고 천천히 하면 안되냐고 말할 수 있다”며 “삼각 파도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기업들보다 더 힘든 건 취약계층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돼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

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갖춰져도, 어느 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성장이 제한되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라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힘들다. 우리 기업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꾸준히 사회기여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아직 기업의 활동이 미비한 ‘기회의 영역’에서 국민은 바라보고 있는데 기업의 리소스 투입이 부족했던 것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리워드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측정돼야 보상 시스템 가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발휘되는 ‘관계의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는 정부, 기업과 그 구성원,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고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문제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업과 지역상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실천에 동참하길 강조했다. 최 회장은 “ERT에는 소중한 파트너들이 많이 늘었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주한미국상의도 ERT 리더스클럽에 합류한 만큼 외국계기업의 동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美·中 무역갈등에 국내 조선사 ‘반사이익’

### 중 기업과 계약하려던 獨 해운사 한화오션에 컨선 6척 발주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 산업에 제재를 검토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무역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조선소 발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더해 반사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가 1만 6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6척을 한화오션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12억달러(약 1조 7500억원) 수준이며 최종 결정은 이달 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당초 하팍로이드는 중국 조선사와 건조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발주처를 한화오션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중국 1위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 군대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로 판단했다. 해당 조사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조선업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도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일 컨퍼런스콜에서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한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선주들의 중국 발주 거부감이 실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비서구권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 부분을 겨냥한 신조 수요 가능성도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또한 지난달 “최근 중국 조선소의 설비 확장과 대량 수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의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중국 선사 조선소 블랙리스트 등재 등으로 한국 조선소 선호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LNG개발 및 인프라투자 확대가 예상되면서 LNG 운반선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국내 조선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업 의지를 밝힌 점도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국내 조선사들은 연간 20조원 규모의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본격 뛰어들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이미 지난해 2건의 사업을 따냈고 HD현대중공업도 올해 2~3척의 미군 함정 MRO 수주 계획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분야의 경쟁사인 중국 기업 위신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주요 선사들의 발주 흐름과 각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2025년 산업부 조선해양분야 지원 예산 현황>

/자료=산업부

분야	2024년	2025년	증감율
친환경 선박	1,202억원	1,716억원	42.7%
공정 디지털전환(DX)	486억원	667억원	37.2%
자율운항선박 등	166억원	203억원	22.2%
합계	1,854억원	2,586억원	39.5%

##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에 2600억 투입

산업부, 전년 1854억 대비 40% 증액  
친환경에 1700억, 공정DX 700억 등

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가 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전년(1854억원) 대비 약 40% 증액한 258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하며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예산 중 친환경 선박에 가장 많은 1700억원을 투입하고,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1차 지원과제를 12일 공고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총 17개(약 200억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선박 ▲전기 추진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조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

신규 과제 중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조선소·협력업체간 협업플랫폼과 조선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 개발에 가장 많은 1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사업도 착수한다. 암모니아 벙커링선박(2만 3000㎡급) 건조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에는 5년간 1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전압 직류시스템 중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윈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양식은 범부처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화 김동선, 푸드테크 확보 의지... 외식사업 등 시너지 기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 한화그룹 아워홈 인수

인수 위한 계열사 설립 공식  
급식·서비스 사업 등 경쟁력 강화  
구지은 전 부회장 지분 희석 검토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을 전격 인수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인수를 위한 계열사 우리집에프앤비(가칭)를 설립한다고 11일 공시했다. 당장은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38.56%)과 장녀 구미현 회장(19.28%)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1340만주(58.6%)를 인수한다.

한화그룹이 아워홈 인수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



한화그룹 전경. (원형사진)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조트 및 한화비전의 미래비전총괄을 맡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은 푸드테크와의 시너지를 위해 급식 업계 2위인 아워홈을 점찍고 인수를 추진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보유한 호텔·레

저 사업과 아워홈의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결합해 그룹 차원의 외식·서비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한화푸드테크와 한화로보틱스의 시너지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급

식 사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술을 계열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아워홈의 기업 가치를 총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86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한화그룹에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계약 주체로 나서 자체 보유자금과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인 IMM크레딧솔루션으로부터도 2500억~3000억원을 끌어온다.

다만 당초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화비전이 “투자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금융사들과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날 공시에서 “아워홈 주식회사의 주주인 구본성, 구미현 외 2인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우리집에프앤비 주식회사는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전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아워홈 주식 매매를 둘러싼 당사자 지위와 권리, 의무 전부를 이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아워홈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경영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차녀 구명진 씨(19.6%)와 막내인 구지은 전 부회장(20.67%)은 지분 매각에 반대해 왔다.

한화그룹은 아워홈 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해 구지은 전 부회장 측 지분을 희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 1면 '아파트 줌줍 무주택자'서 계속

# 유주택·지역 등 청약접수 60% 제한... 실수요자 보호 방점 “무주택 취지 맞게 개편”

##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

광역권 거주 요건 탄력적 부여  
“상반기 중 빠른시일 내 개정”

청약확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현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김현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과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과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나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들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무주택 취지 맞게 개편”

국토부는 무순위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까지 신설하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란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 해외 IB 절반, 美 금리인하 축소 전망... 韓 ‘경계-성장’ 딜레마

연초부터 환율 1450원대 웃돌아  
금리 기조에 따라 내수경기 좌우

글로벌 투자은행(IB) 절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1회 이하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145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를 동결해야 하지만, 내수 인하가 불가피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10곳 중 5곳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1회 이하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 ◆美 올해 금리인하 0~1회 전망 확산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14만3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6%로 한 달 전보다 0.01% 포인트(p) 상승하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4.0%로 하락했다. 여전히 높은 금리에도 안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도이치뱅크는 연준이 지난 1월에 이어 내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무라도 1월 1회 인하에서 동결로 변경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1회로 낮췄다. 통상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여부가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와 트럼프 정책의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클리카지 1회 전망을 유지하며 모두 5곳의 IB에서 올해 0~1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 ◆韓 성장률 먹구름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450원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 확대 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 확대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고려해 연 3.0%의 금리를 유지한다”고 했다. 지난 1월 평균 환율은 1455원이다. 지난달과 비슷한 환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내수(투자·소비) 경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지며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각각 0.2%p, -0.1%p, -0.9%p,

-0.8%p로 결국 GDP를 0.4%p 끌어내렸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 폭은 2003년(-3.2%) 이래 최대다.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소비자의 부채 상황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인하로 부채 상황 부담을 줄이고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환경(환율 상승)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불안 곳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고객중심 경영·이익강화 총력… “보험 스탠다드 될 것”



KB손해보험

## ⑭ 구본욱 사장

KB손해보험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디자인하는 2025년’을 실천한다. 보험시장의 판을 바꾸고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나겠다는 포석이다.

### ◆ 고객중심 경영 완성

올해 KB손해보험은 고객중심경영 완성에 나선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경영전략이 고객중심인 만큼 올해는 고객중심 경영을 완성하고 보험산업의 스탠다드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구본욱 사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은 고객”이라며 “고객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KB손해보험은 1만14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중심 가치 정립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내·외부 고객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면, 표적집단 면접(FGI) 조사를 진행하고 임직원과 영업가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가치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고객중심 가치 정립 프로젝트 통해 13가지 항목의 프라이드와 20가지의 고객중심 행동기준을 세웠다. KB손해보험 구성원이 보험인(人)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대고객 업무를 진행할 때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기준들로 구성된 행동기준으로 심리학 이론들을 접목해 보험업에 적합한 고객중심 가치를 정립했다.

KB손해보험은 “고객중심 가치 정립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은 항상 옳다’는 마음으로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에 ‘고객’을 두고 ‘고객가치 1등 회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열린 시무식에서는 ‘차별화된 고객중심 경영 완성’을 강조했다.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도 6가지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고객중심경영 실행 체계 조기 완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더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본욱 사장은 “누구나 외치는 평범한 수준이 아닌 KB손해보험만의 차별화된 고객중심 경영을 완성하고 보험 산업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을 이뤄야 한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 전반에 반영해야 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



고객가치 정립 프로젝트로 행동 기준 수립  
“모든 의사결정 최우선 고객” 경영철학 반영  
올해 상반기까지 실행체계 조기 완성 목표

장기 보장성 보험 집중해 성장세 지속  
디지털·비대면 채널 강화, 신사업 확대  
자산운용 경쟁력 확보… 수익성 기반 강화

“단순한 변화 아닌 근본적 혁신” 강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  
업계 1위 도약 위한 차별화된 전략 가동

다”고 말했다.

### ◆ 매출·이익 창출력 강화

KB손해보험은 기존의 성장 방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해 구본욱 사장은 취임 직후 ‘회사가치 성장률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목표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지다.

구 사장은 “우리 회사가 경영목표를 꾸준히 달성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표를 넘어서는 더 큰 도전과 노력에 전력을 다했던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KB손해보험 실적은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와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로 지속 성장해왔다. KB손해보험의 지난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7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계약서비스마진(CSM)은 약 9조3000억원으로 2.4% 상승했다.

특히 3분기 누적 장기보험손익이 8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2% 급증했다. 장기보험 호조로 누적 보험영업손익도 8756억원으로 12% 증가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회사가치성장률 1위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장기 인보험에 집중해 CSM 성장률 1위를 달성했다”며 “지난해 초에 세웠던 목표들을 일정 부분 순차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호실적을 기록한 KB손해보험은 올해도 장기 보장성 보험에 집중한다. 연초부터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와 ‘골든케어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이면서 건강보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달엔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보험부문’에 ‘장기보험업무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안정적 이익체력을 기반으로 본업 핵심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보에 나선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으로 채널별 시장 지위를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디지털사업부문’을 신설해 비대면 채널 중심의 미래 채널 경쟁력도 강화했다. ‘일반보험부문’에서는 조직 재편을 통해 부문 통합 전략의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사 지원체제도 강화했다. ‘DT추진본부’ 산하에 ‘AI데이터분석파트’와 ‘헬스케어지원Unit’을 신설해 디지털·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했다. 자산운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금투자본부’ 및 ‘자산투자파트’를 신설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지주 안에 있는 계열사이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다름없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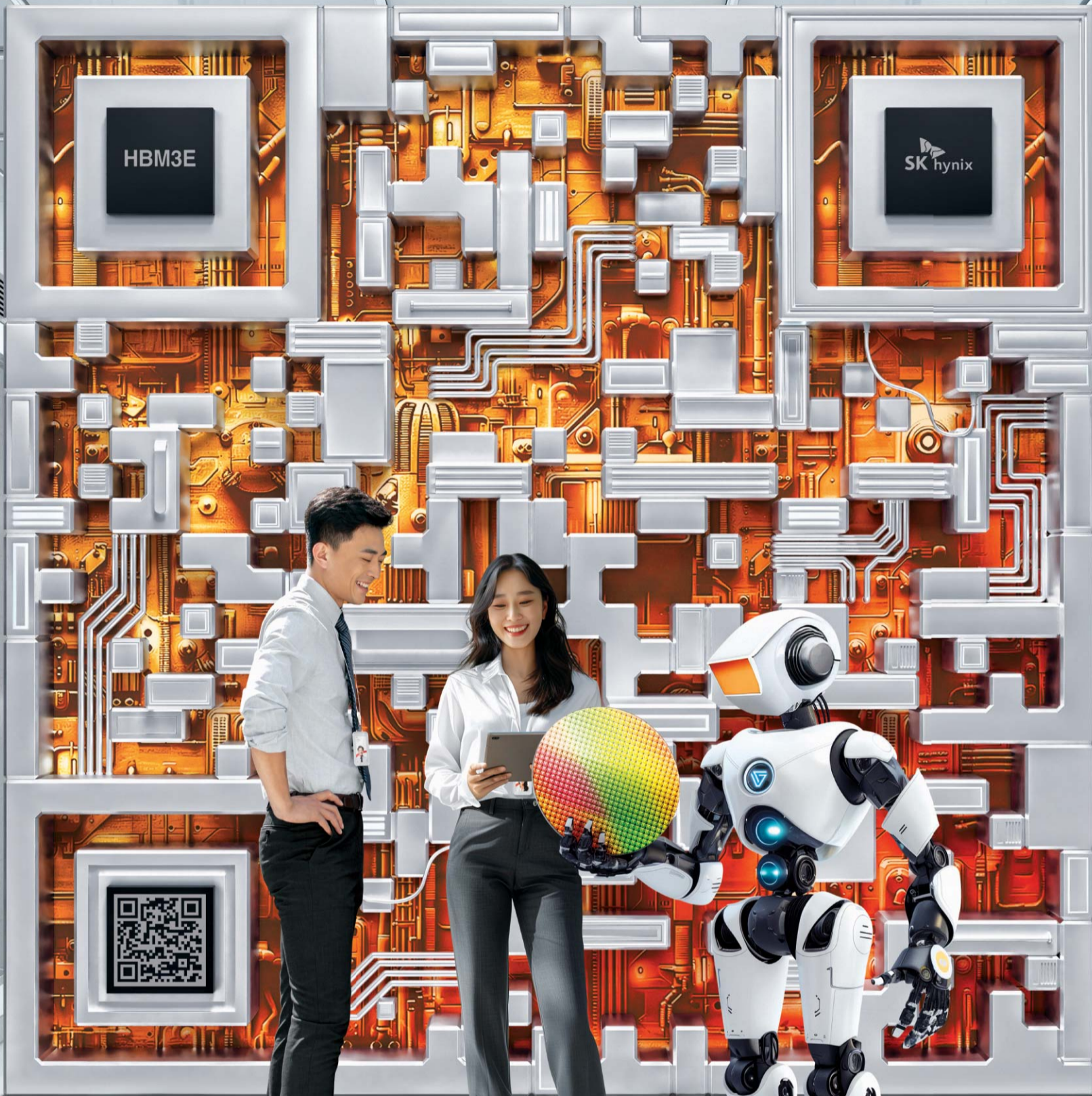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손해보험이 ‘KB희망서포터즈’ 18기 과제 발표회를 진행하고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희망서포터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 권성동, 李 언급만 18번… “대통령직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李 실용주의, 정치적 가면극 불과 정치 위기 근본적인 해결책 ‘개헌’”

의료개혁 필요… 의·정 대화 재개 연금특위 구성하면 모수개혁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만들기’ 시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18번 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미소짓고 있다. /뉴스시

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원인을 민주당 주도의 ▲정부 인사 탄핵소추안 발의 ▲특검법 추진 ▲2025년도 예산안 삭감 안 처리 ▲상임위 청문회 개최 ▲여야 미합의 법안 강행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창한 ‘실용주의’는 집권을 위해 가면을 쓴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쯤 성장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권형 개헌, 의료·연금 개혁, 민생 추경·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필수요를 정상화하고 지역요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책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이재명·권성동, ‘추경’ 연일 언급… 이전차는 ‘그대로’

권성동, 내수회복 등 추경편성 제안 지역화폐 제외·감액안 원상복구 주장 이재명, 최소 30조 규모 추경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있어,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될 모양새다. 다만 ‘뱃꽃 추경’을 기대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있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간 ‘1분기 예산 조기집행 뒤 추경

검토’ 입장보다 전향적인 자세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야당이 지난해 여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킨 올해 정부 ‘감액 예산안’을 원상 복구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등 정책 소지가 있는 내용을 빼면 당장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론날 경우,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야권 대선 후보는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공약을 내세울 게 자명한데, 여당이 반대하면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이 대표는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해 여지를 남겨뒀다.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 추

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규모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30조원이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5조~20조원 편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 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차 회담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통상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군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뉴스시

## 야6당, 尹 부부 겨냥 ‘명태군 특검법’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거부권을 맞고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명태군 게이트’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별검사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군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 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여, 2022년 대우조선공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한편 특검법의 당사자인 명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 비명계, 개헌론으로 ‘李 체제’ 압박

개헌론 형식, 시기 등 일치하지 않아

정치권에서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사이득을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개헌’을 시대의 의제로 삼으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여권은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은 일찍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구축해 이 대표 외에 당

내 차기 대선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이 내세우는 개헌론이 이재명 체제를 흔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계가 개헌론을 반복해서 내세우면, 이 대표 측에서도 입장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큰 이슈가 된다는 분석이다.

비명계의 개헌론에 대한 형식, 시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다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 이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

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기 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선을 그으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개헌 사항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 대표 측은 입법을 통해 소

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여야가 정쟁하는 구도 속에서 극단적인 계엄 사태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구조 개혁이라든지 개헌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 사이에서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이 합의되지 않고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개헌론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분열된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할 시 현실적으로 두달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여야가 개헌을 합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예금금리 뚝뚝, 대출금리는 여전... 예대금리차 더 벌어진다

5대은행 정기예금금리 최고 연3.1%  
신용대출 금리는 3.61~5.43%

美 국채 상승, 국내 금리부담 가중  
은행, 가산금리 조정해 인하 추진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디게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5개월 연속 확대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의 기본금리는 연 2.40~3.10%로 집계됐다. 최고금리는 연 3.00~3.1%다. 지난해 말 이들 은행의 최고금리가 연 3.15~3.5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 기준 0.45%포인트(p) 낮아졌다.

은행들의 정기예금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00%로 내린 영향이 컸다. 지표금리가 되는 시장금리도 하락에 영향을 줬다. 금융채 1년물(은행채·AAA) 금리는 지난해 말 3.033%에서 이달 10일 기준 2.838%로 0.195%p 내렸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용대

출 금리(6개월 기준)는 3.61~5.43%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금리(4.87~5.72%)와 비교하면 상당 기준 0.29%p 떨어졌다. 예금금리 하락 폭보다 여전히 적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87~4.95%에서 3.82~5.22%로 상승했다. 금융채 5년물(은행채·AAA) 금리가 3.089%에서 3.004%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국내 은행채 금리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지표가 된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등장하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7.70bp(1bp=0.01%p) 오른 4.2930%를, 10년물 금리는 5.90bp오른 4.4970%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고 국내 대출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과 같은 지표금리에 신용도에 따른 추가·우대금리를 더해 정한다.

앞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가산금리를 내려 금리를 인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주담대·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2%p, 0.01~0.29%p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0.6%p 인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카드 News

### 신한카드 새 학기 시즌 이벤트 에듀플랜+ 고객 경품

신한카드는 새 학기 시즌을 맞아 '신한카드 에듀플랜+' 고객 대상 행사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행사에 응모하고, 에듀플랜+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경품을 준다.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 SE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 2매 ▲2025 마이신한포인트 등을 지급한다.

이어 청소년 자녀의 용돈 카드로 적합한 가족 신용카드 '신한카드 마이틴S'를 발급받은 선착순 1001명에게는 2025마이신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스쿨뱅크 자동 납부' 이용 고객을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스쿨뱅크 카드납부를 신규 신청하고, 신청월로부터 2개월 내 첫 납부하는 고객에게 학생 1명당 5000원을 돌려준다.

### 삼성카드 테슬라 차량구매 고객 무이자·금리할인 혜택

삼성카드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금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할부로 테슬라 '모델3'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또는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모델 Y·S·X'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연 4.1%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할부는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하다. 카드 할부대금 중 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리 할인 행사는 카드 승인 및 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 오는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고금리 막차 기회... 새마을금고, 연 4% 정기예금 주목

은행권·저축은행 금리 내리막길  
"금리 하락기엔 중장기 예금 유리"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도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연 4%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이 있어 관심을 끈다. 예금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른 만큼 '고금리 막차'에 탑승하기 위한 '에테크족'과 '금리 노마드족'의 눈길이 쏠린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역 새마을금고가 연 4%의 정기예금(1년물)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한 곳은 경기 양평군 소재 용문새마을금고 본점이다. 1000만원을 예치하면 1년 뒤 세후 33만 84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충북 보은새마을금고와 서울 중구 청계새마을금고 등이 정기예금에 연 3.7% 금리를 적용한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Chat GPT가 생성한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부부' 이미지.

다. 같은 날 기준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당은 연 3.31%다. iM뱅크의 'iM주거래 우대예금'이 해당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Sh수협은행의 첫만남우대예금, BNK부산은행의 특관 정기예금이 각각 연 3.3%, 3.2% 금리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인하 속도도 가파른 흐름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16%다. 연초 대비 0.17%포인트(p) 하락했다.

저축은행이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던 지난 2023년 동기와 비교하면 1.5%p 가까이 떨어졌다. 예금금리 상당 또한 연 3.5%로 새마을금고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한동안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내리막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대출 여력이 쪼그라든 영향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취급을 중단했다. 조달금리 상승에 리테일(소매금융) 수요도 줄었다. 상대적으로 건전성 확보에 유리한 담보대출로 눈을 돌렸지만 수요 확보에는 실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이 취급한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은 1179억원이다. 전년 동기(1485억원) 대비 20.6%가량 감소했다. 이어 부동산담보대출과 기타 담보

대출이 각각 18.1%, 8.3%씩 줄었다. 새로운 대출 수요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지금이 고금리막차를 탈 시기라는 분석이다. 금리를 포기하더라도 예치 기간 2~3년의 중장기물로는 눈을 돌리라는 조언이다. 수신 금리 하락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목돈을 장기간 맡길 수 있는 투자처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이다. 중장기물의 경우 금리 인하 속도가 단기예금(6개월)과 1년물 정기예금 대비 가파르기 때문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안정적인 투자상품의 대표적인 만큼 납입기간, 가산금리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며 "단기 후 자동예치기간에 제공하는 가산금리까지 산정해 살펴볼 것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KB금융 경영진, 자사주 2만주 매입

기업가치 제고 강한 의지·자신감  
수익성·주주환원 초점 자본 관리

KB금융그룹 경영진들이 2만여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1일 KB금융에 따르면 전 계열사 대표이사 및 지주 임원들은 지난 5일 실적 발표 이후 약 2만주의 자사주를 장내 매입했다. 전체 계열사 대표이사 12명이 약 1만3000주, 지주 경영진 13명 약 7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경영진이 동시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반으로 2025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성과지표(KPI)를 재설정하는 등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경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은 모든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

에 반영하겠다는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업계 최초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고, 분기배당정책 및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작년 10월에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방안'을 발표하며 보통주 자본비율(CET1)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 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도 KB금융은 수익성과 주주환원의 지속적인 우상향에 초점을 맞춰 자본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실적발표회를 통해 상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52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76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CET1 비율 13.5%를 초과하는 자본도 추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현행		개선	
	가입연령	보장연령	가입연령	보장연령
노후 실손	75세 이하 표준제	100세까지 보장	90세 이하 표준제	110세까지 보장
유병력자 실손	70세 이하 유병력자		90세 이하 유병력자	

## 90세 고령층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4월1일부터 가입·보장연령 확대  
유병력자도 90세 이하까지 가입

오는 4월부터는 90세의 고령층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이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선 실손보험이 필수적이지만, 가입연령 제한으로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을 75세 이하에서 90세 이하로 확대한다. 보장 기간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연령을 75세에서 90세 이하로 확대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이미 보험에 가입돼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0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노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부품업계,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고부가 신사업 '탄력'

첨단산업 회복세... 업계 전반 활력  
美·中 관세전쟁 반사이익 기대도  
로봇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나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겹치며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부품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그간 국내 부품사들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시장의 불황 등으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데다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와 자율주행 시장까지 부상하면서 수혜를 입고 있다. 부품사들의 주력 제품인 카메라 모듈 등이 이들 시장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부품업계는 고부가가치 제품 등에 주력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2억 2300만대로 예상된다. 전년(11억4100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CES 2025' 현장에서 'Mi-RAE' 신사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만대) 대비 7.1%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시장은 회복세였다. 지난4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2840만대로 전분기 대비 6% 증가했다.

국내 부품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그간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LG이노텍과 LG디스

플레이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사업에 올인해왔다. 이에 고성능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제품 공급이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갤럭시A 시리즈, 아이폰SE4 등 중저가 모델을 연이어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LG이노텍은 아

이폰 SE4용 전면 및 후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LG디스플레이가 아이폰 SE 4용 OLED 패널을 공급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도 호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정책은 곧 애플의 중국산 부품 탑재 감소로 이어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다.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계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이들 시장이 확장되면서 부품사들이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품사들의 주력 제품인 카메라 모듈 등이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이다.

실제 삼성전기는 2024년 매출 10조 2941억원, 영업이익 735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조원을 돌파했다. LG이노텍의 전장부품사업은 지난해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 감소했지만, 수주잔고는 27% 증가한 13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국내 부품사들은 이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에 본격 뛰어든다.

삼성전기는 'Mi-RAE'를 신사업 분야로 꼽고 로봇, AI등 산업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기반인 FC-BGA(플립칩-불그리드어레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FC-BGA는 전선 없이 AI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기판에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기판이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MLCC, 카메라 모듈 등을 개발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애플 관련 매출이 70% 이상 차지하는 LG이노텍도 자동차, 로봇, 반도체 등 신사업에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은 엔비디아의 AI 기술이 적용된 휴머노이드 로봇 14개 중 절반 이상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공급할 FC-BGA 양산을 시작하는 등 AI 반도체 기판 시장 공략에도 집중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한화에어로, 'K-방산' 열풍 주도... 매출·영업익 신기록

김동관 부회장 중심 사업구조 재편  
'글로벌 톱티어' 기업 발판 마련

김동관 한화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K-방산 열풍을 주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며 매출 20조원대의 '글로벌 톱티어' 방산·조선해양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11조2462억원, 영업이익 1조72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3%, 190% 증가해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기준 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2023년 6월 7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화그룹

출이 내수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난 4조8311억원, 영

업이익은 222% 증가한 8925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무기 체계인 K9 자주포,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 등 수출과 국내 납품 물량 증가가 돋보였다.

특히 한화 방산 중간 계열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오션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했다. 한화임팩트파트너스(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주당 5만 8100원(2월 10일 종가 기준), 약 1조 3000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매입으로 연결 기준 한화오션 보유 지분율은 34.7%에서 42.0%로 늘어난다.

한화그룹 3형제가 지분을 나눠 가진 한화에너지의 한화오션 지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일원화되면 김 부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방산 및 조선해양 사업 글로벌 사업 시너지 제고와 글로벌 수출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 냉장고 영 소비자 신뢰도 1위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뉴스위크는 시장조사기관 브랜드스파크와 함께 영국 소비자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요 소매 부문별 신뢰받는 브랜드를 꼽았다.

뉴스위크는 선정 결과에 대해 해당 순위가 100% 실제 구매자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으며 브랜드 신뢰도는 품질은 물론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합리적 가격, 고객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는 영국 가전 전문 매체인 굿하우스키퍼가 최근 발표한 '최고의 냉장고'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굿하우스키퍼는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에 대해 "이보다 더 발전된 냉장고는 없다"고 극찬하며 100점 만점에 90점을 부여했다.

삼성전자 냉장고는 지난 12월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로열 워런트는 5년 이상 왕실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 업체를 평가해 부여하는 영국 왕실의 공식 인증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영국 왕실의 냉장고 공급업체로 선정돼 세탁기,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등 AI 기능을 탑재한 냉장고 라인업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 TV와 TV 사운드바 역시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각각의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구남영 기자

# 금호석화 "3개년 주주환원율 40% 목표"

기업가치 제고 중장기 로드맵 공개

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사진)이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새로운 주주환원정책과 향후 성장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금호석유화학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크게 3가지로 ▲2030년까지 매출 성장률 6% ▲2030년까지 ROE(자기자본이익률) 10% ▲향후 3개년 주주환원율 최대 40%로 각각 구분된다.

우선 주주환원율 관련, 회사는 약 3년 전인 지난 2021년 발표했던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5~10% 수준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비율을 올해부터 10~15% 수준으로 5%p 상향한다. 또한 업



황 둔화에도 20~25%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

지난 해 발표한 기 보유 자기주식의 50%를 3년간 단계적 소각하는 주주가치제고정책 역시 진행 중으로, 지난 해 3월 1차로 87.5만주를 소각 완료했으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2차와 3차 소각을 계획 중이다.

회사는 ▲친환경 자동차출루선 강화 ▲바이오·지속가능 소재 확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가속화를 회사의 3대 성장전략으로 설정해 2030년까지 매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비롯해 주주환원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에 연결되는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SK네트웍, 수익구조 개선... 영업이익 60% ↑

지난해 매출 1.8조, 영업이익 367억

SK네트웍스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지난해 높은 호실적을 기록했다.

SK네트웍스는 2024년 4분기 매출 1조 8489억원, 영업이익 367억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8%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60.5% 증가했다.

신규 현대전화 단말기 출시 시기 조정으로 매출은 다소 하락했으나 수익성 향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연간 누적 실적은 매출 7조 6573억원, 영업이익 113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동시

에 보유 사업 전반의 수익력 향상에 성공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 41.4% 증가하며 개선됐다. 연간으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보유 사업 혁신의 기반을 닦은 한 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올해 SK네트웍스는 탄탄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보유 사업에 AI 접목을 통한 혁신과 수익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사업별 AI와 연계된 성장방향을 구체화하고, 어떤 기업보다 오피레이션이 강한 기업의 모습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 명령어만 입력하면 웹툰·소설 똑딱... AI 창작 논쟁 확산

법적 공백 속 창작자 권리 논란  
글로벌 IT 기업, 저작권 소송 잇따라  
예술계 반발 확산, AI 활용 범위 쟁점  
AI 콘텐츠 증가로 창작 개념 변화

# 기자는 챗GPT에 '3컷 만화 시나리오'라는 프롬프트(명령어)로 스토리를 얻었다. 그 후 구글에 '만평 그림' '선화' 등 검색어로 마음에 드는 그림 3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림 생성형 인공지능(AI) 미드저니(Midjourney)에 적당히 프롬프트를 써넣었다. 영어로 써야 하는 프롬프트는 구글 번역을 이용했다. 그렇게 생성한 그림 중 두 장을 골라 적당히 이어붙이자 세 컷 만화가 완성됐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비용은 미드저니 구독료 8달러(약1만 1600원)에 불과했다. 이 웹툰은 기자의 창작물일까. 기자를 '웹툰 작가'라고 말해도 될까.

제작물을 완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들이 IT 업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타인의 그림과 영상, 음악을 학습시켜 만든 AI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활용이 보편화하고 AI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활발해지며 저작물을 다듬거나 제작 과정의 일부를 돕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최종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각광 받고 있다.

AI 제작물은 처음 챗GPT 발표 이후 그림 생성형 AI인 '미드저니' 등이 등장하며 처음 저작권 논쟁이 일어났다. 그림, 음악, 미디어 아트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생성형 AI들의 결과물에 자신



생성형 AI 미드저니에 타인의 그림을 학습시켜 이미지를 제작하는 모습. /화면 캡처

의 작업물과 유사점을 발견했다는 작가들이 쏟아졌다.

이날 영국의 예술가 3000명은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 크리스티에 서한을 보냈다. 예술 분야를 막론한 이들은 최근 크리스티가 AI 작품 경매 행사 계획 '증강된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을 내놓은 것을 두고 "AI 모델들과 배우에 선 기업들이 허가나 대가 지불 없이 인간 예술가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 중"이라며 AI 작품이 자신들과 경쟁하는 상업용 작품 개발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와 관련한 송사로 몸살을 치르고 있다. 이미 2023년 엔스로픽의 챗봇 '클로드'는 유니버설뮤직, 콩코드퍼블리싱 등 글로벌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싸우고 있다. 이러한 송사는 오픈AI의 챗GPT와 DALL-E는 물론 스테블리티AI와 미드저니 등 거의 모든 AI 기업이 겪고 있다.

반면 IT업계에서는 아예 완성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AI 기술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현실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일 3D 기반 AI 영상 솔루션 '시네비(CINEV)'를 개발한 시나몬은 11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시네비는 사용자가 입력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가상의 3D 공간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영상을 구현한다. 사용자는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 연출, 조명, 배경 등을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나몬에 투자한 기업은 네이버웹툰, 스노우, 네이버 제트 등 네이버 계열과 크래프톤, 여기에 더해 알토스벤처, 새한 창업투자 등에 이른다.

이미 저작권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AI들도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음악 생성형 AI '수노(SUNO)'는 지난해 6월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한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협회는 수노가 생성한 음악들이 머라이어 캐리, 템페이션즈 등 팝가수들의 히트송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마이클 잭슨 등의 목소리까지 훔쳤다고 봤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수노를 활용한 홍보곡 등을 제작하고

Variation A woman's back is depicted from a slightly oblique angle as she diligently works on a computer in an office.



ar 3:4

/화면 캡처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AI 뮤직 비디오를 공개하며 모든 작곡과 작사를 수노로 이용했다. 오는 10월말 열리는 'APEC 2025'의 홍보곡도 수노와 챗GPT를 제작에 활용해 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인간의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보고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을 저작자로 인정한다. 다만,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하면 저작권은 표현을 추가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기자가 여러 AI를 이용하고 무단으로 타인의 그림을 학습시켜 만든 만화의 저작권은 기자에게 있다. 마지막에 글귀를 써넣었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 협회 또한 인간이 아닌 기술이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앞서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1등을 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제작자 제이슨 M 앨런이 여기에 반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카카오

### '시니어 작가' 협업 이모티콘·굿즈 출시

카카오가 시니어 작가와 협업한 이모티콘 및 굿즈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는 19일까지 카카오테이크스에서 '시니어 작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타이틀의 기획전을 연다. 시니어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해 디자인한 폰케이스, 키링, 담요, 손수건, 다용도 클리너 등 총 8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판매된 굿즈의 수익금은 전액 기부되며, 기획전 내 좋아요를 눌러 작가를 향한 응원의 마음도 전해볼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이모티콘의 작가들은 90대 드로잉 작가 여유재순, 대한민국 1세대 순정만화작가 민애니, 70대 색연필 수채화작가 김성일, 따스한 색채로 담아낸 표현주의 작가 금동원 등 총 4명이다. 이번 협업은 카카오 이모티콘이 전 연령과 함께하는 플랫폼이자,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디지털문화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 '이기종 로봇 연동' 확대 공간 디지털전환 앞당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로봇 전문 기업 브이디컴퍼니와 손잡고 '서비스 로봇을 활용한 공간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브이디컴퍼니와 '이기종 로봇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로봇을 통한 공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4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 연구소장과 함판식 브이디컴퍼니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로봇 플랫폼 기술을 브이디컴퍼니의 로봇 서비스 상용화 노하우와 결합해 이기종 로봇 간 연동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봇 서비스 '브링'과 오픈 API 플랫폼 '브링온'을 기반으로 실내의 배송, 청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서비스를 확장해 왔다. LG전자, 로보티즈, 베어로보틱스 등과 협력해 병원, 리조트, 사무공간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서빙 등 추가 서비스로 카테고리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 최수연 "AI로 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구축"

(네이버 대표)

파리서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알파벳 CEO와 기업인으로서 유일  
웹툰 AI 기술 활용 등 적용 사례 강조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네이버가 AI 기술로 구축한 디지털 생태계 비전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11일(현지시간) '지속가능한 AI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체 총회 두번째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해당 세션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페테

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 파티 비를 국제 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단, 학계, AI 업계 리더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션 패널로 초청받은 기업인은 최 대표와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등 두 명이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네이버는 핵심 AI 원천기술과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서비스를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디지털 생태계에 더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확

보했다"며 "수많은 정보에 대한 사용자들의 질문과 답변, 생활의 지혜가 담긴 글 등을 바탕으로 축적된 콘텐츠를 다시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인 'AI'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AI는 이용자와 창작자, 판매자를 더 섬세하게 연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내용, 구성, 제작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만화 플랫폼 '네이버웹툰'에서는 'AI 큐레이터'가 활약하며 더욱 더 다양한 장르와 스토리의 웹툰이 이용자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창작



11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DAN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가 실생활과 결합하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네이버

자들에게는 'AI 채색도구'를 제공해 보다 섬세한 스케치 작업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다"며 구체적인 AI기술의 활용 사례도 언급했다. /김서현 기자

## SK브로드밴드, 'AI스마트리모컨' 도입

TV 시청 상황 인식해 정보 제공

SK브로드밴드가 모바일 B tv 애플리케이션(앱)에 TV 시청 상황을 인식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AI스마트리모컨' 기능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AI스마트리모컨은 기존 모바일 B tv 리모컨 기능을 확장해 실시간 및 VOD 시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AI Fe

ed'에서 자동으로 제공한다. AI Feed는 SNS 피드처럼 시청 콘텐츠와 연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실시간 채널을 시청하면 인기 채널 순위를 안내하고, 사용자가 계속 채널을 변경하면 시청 이력을 분석해 맞춤형 채널을 추천한다. 드라마-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을 볼 때는 해당 VOD 및 최신 클립 영상을 제공해 놓친 장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민 기자

## SK C&C, 고객 맞춤형 AI 전환 서비스 선포

'AI 파워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SK C&C가 11일 국내외 클라우드 고객을 대상으로 빠르고 경제적인 AI 전환을 지원하는 '고객 맞춤형 AI 파워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클라우드 전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축을 넘어, 고객의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최

적화된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고 제공한다. 또 클라우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및 비용 문제를 AI 기술로 통합 해결해준다.

서비스를 위해 SK C&C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MCMP), 클라우드 모더니제이션 플랫폼(ZMP),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ZCP), API 관리 플랫폼(APIM) 등 자사 주요 솔루션에 AI 기술을 접목했다. /김서현 기자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함판식 브이디컴퍼니 대표(오른쪽 여섯 번째) 등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정은보 “상장폐지·IPO 개선안, 올해 가장 역점두고 추진”

(거래소 이사장)

## 한국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  
MSCI 등 선진지수 편입 마케팅 박차  
파생상품 10종 야간거래 도입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올해 업무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증시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자본시장 밸류업 달성 ▲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투자자 신뢰 제고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한국거래소의 4대 핵심전략으로 소개하면서 지난달 발표한 ‘상장폐지·IPO 개선안’을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선안은 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공개(IPO) 기업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요예측 참여자

격 및 방법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코너스톤투자자(공모주일부 청약을 약정하는 투자계약),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해 주관사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주식시장 구조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공모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을 통해 불법 공모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거래소(ATX)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수기업 선정·표창,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해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세제 혜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필요하

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 지수사용권 개방을 통해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의 해외 상장을 허용하는 한편 뉴욕, 런던 사무소를 개소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선진지수 편입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 10종에 대한 야간거래(오후 6시~익일 오전 6시)도 도입돼 밤 시간대 변동 리스크 헷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텍스 사업 및 IT 인프라 수출 등 거래소의 수익모델을 다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라인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가상자산 상품과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 거래소의 사업다각화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테슬라·엔비디아 ‘흔들’... 서학개미는 ‘줍줍’

###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1.3억弗, 엔비디아 1.1억弗 매수  
주가 급락에 단기 반등 기대감 풀이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2월 4~10일) 테슬라를 1억365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 주가의 하루 변동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TSLF)도 8504만달러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1억1188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주가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그레닛셰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NVDL)도 2694만달러어치 매입했다.

서학개미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은 최근 주가 하락폭이 컸던 만큼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관세 전쟁 우려로 인해 지난 3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 5.17%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관련 이미지.

급락했다. 이후에도 전기차 시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350달러 선까지 밀려났다.

엔비디아 역시 지난 3일 ‘딥시크 쇼크’로 116.66달러까지 하락하며 전 저점이 깨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약간 반등하고 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테슬라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1월 테슬라의 판매량은 부진했다. 독일에서 전년 동월 대비 59.5%, 프랑스에서 63% 넘게 감소했으며, 중국에서도 11.5% 줄었다. 특히 주력 차종인 모델3과 모델Y의 판매량이 33%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IB) 스티펠은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기존 492달러에서 474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스티펠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테슬라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실적 기대감 속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아르거스의 선임 애널리스트 제임스 켈러는 “AI 분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게임과 자동차 산업에서도 강력한 성장 기회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 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공개

모범납세자 우대 등 5종 세정지원  
표창 기업에 8종 인센티브 제공

한국거래소가 3단계 평가체계 방식의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과 표창 기업에 대한 8가지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외부 연구용역과 밸류업 자문단과 함께 논의됐으며, 올해는 경제부총리상 2개사, 금융

위원장상 3개사, 거래소 이사장상 5개사를 표창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쟁정구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시 가점이 부여되며, 감리 제재 시에는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

상장·공시 분야는 거래소 연부과금과 추가·변경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

재금 등) 유예도 적용된다. 이외 홍보·투자 분야의 혜택으로는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시 우대도 적용된다.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8종의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해당 기간에 유가증권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이나 최근(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하은 기자

## iM증권, 비대면 스마트지점 계좌개설 행사

신규 고객, 국내주식 수수료 0.01%

iM증권은 이달 24일까지 비대면 스마트지점 신규 및 휴면고객 대상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iM증권 스마트지점(비대면)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내 주식 0.01%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선물 옵션을 거래할 때는 3개월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한 번만 거래하면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0.069%로 적용한다.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간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하며, 환전 수수료는 90% 우대한다. 신용·주식담보 대출 시에는 금리를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간 연 4.7%로 우대해 적용한다.



/iM증권

iM증권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iM하이’를 통해 이벤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2%로 제공하고, 환전 수수료를 97% 우대하는 특별 혜택을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간 제공한다. 단 한 번이라도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추가로 1년간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3%로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 예탁원 “국채통합계좌 누적거래액 60조”

지난달 말 기준 보관잔고 2.6조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통합계좌 이용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보관 잔고 2조6000억원, 누적 거래 금액 60조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기구(ICSI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지난 6월 말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보관기관 선입과 개별 계좌 개설 등 절차 없이 바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채통합계좌 이용 규모는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국채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다고 발표한 지난해 10월부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거래 확대도 월별 결제 금액이 처음

으로 20조원을 넘어이기도 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달 런던에서 WGBI 산출기관인 FTSE 러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유럽 최대 금융사인 HSBC의 임원진을 만나 국채통합계좌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세계 5위 국부펀드 운용국 쿠웨이트의 예탁결제회사인 KCC의 두아이즈 라이드 알살레 최고 경영자(CEO)를 만나 양 기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순호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이번 면담 내용 중 국채통합계좌 운영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글로벌 자본시장 관련 기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한국 국채 시장의 국제화를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서울시, 청년취업사 등서 AI 인재 1만명 키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 오세훈 시장 'AI 서울 콘퍼런스'

연내 취업사관학교 25개 캠퍼스 조성 총 6억 이공계 석사과정 장학금 신설

서울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혁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 등 AI 산업 육성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AI 서울 2025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연간 AI 인재 1만명을 배출, 산업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올해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의 25개 캠퍼스 조성을 완료하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로 만드는 조화로운 사회를 주제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성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재편한다. 이공계 석사 과정 장학금 제도(총 6억 원, 60명 지원)도 신설한다.

양재 AI 혁신 지구엔 '서울 AI 테크 시티'(연면적 27만㎡)를 만든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국내·외 대학원부터 세계적인 연구 기관, 문화·주거공간까지 갖춘 '직·주·락' 복합 공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AI 분야 펀드를 조성한다. 생성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기술을 디자인, 뷰티, 패션 산업과 융복합해 AI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해외 우수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AI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및 연구소(캐나다 이바도, 독일 사이버벨리 등), 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서포트하고, 글로벌 AI 연구소·기업 유치를 추진해 AI 혁신 기술 개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는 미래 첨단 산업의 초점이 인공지능 분야로 모인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인재까지 수혈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모든 산업을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발 빠르게 육성·재편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명실공히 글로벌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미아역 오패산 일대 7500세대로 재탄생

서울시, 2개소 신통기회 확정

4호선 미아역 500m 앞, 오패산 자락 구릉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숲을 품은 7500세대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 보행·녹지·경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 실현성을 높인 대규모 주거 단지가 탄생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다각도의 사업 실현 방안을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 지역 사항(제1종-제2종주거), 유연한 높이 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며 "또 '203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사업성 보정 계수 등을 도입해 사업성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원을 구역에 편입해 확대 재조성하고, 기반 시설을 복합화해(상부공원+하부도로·체육시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였다.

급경사와 기형적인 도로 구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도로 체계도 손질했다. 오패산로 구간 확폭(2→4차선)과 미아동 남동측 도로 신설을 통해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김현정 기자



인하대가 최근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을 발굴하고,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하대

## 교육발전 기여 우수교육상 8인 시상

인하대, 강의·교수역량 등 평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을 발굴하고,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는 지난 2개 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이 작성한 강의 평가와 교수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함평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전자재료물성' 강의에서 이론과 프로젝트 수행을 균형 있게 구성해 협업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자 한 점에

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형준 고분자공학과 교수는 '유기화학 1' 수업에서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구조역학' 강의로 수상한 이상열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어려운 전공 개념을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접목하고,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장경호 사회교육과 교수는 '국가경제의 탐구와 연습' 수업에서 미래 교사가 될 학생들이 경제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강남·광운대 등 8곳 OT현장 찾아 안전점검 실시

이외 대학에도 안전확보 지침서 발송 숙박·마약 등 사전교육 여부 점검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대학 신입생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학의 신입생 예비교육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진행된다. 1000명 이상이 교외에서 숙박하는 신입생 예비교육을 개최하는 대학 중 참여 학생 수와 지역 등을 고려해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8개 대학은 강남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대학에 통보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점검 대상이 아닌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학생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

도록 각 대학에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지침서'와 함께 자체 점검표를 안내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숙박시설 안전성, 차량 및 운전자 적격 확인, 마약·음주·폭행 등에 대한 학생 사전교육 실시 여부, 단체활동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예비교육 실시 전부터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성폭력, 음주, 화재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전진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학 축제, 체육활동 등 대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



윤대진 건국대 글로벌식품스트레스연구소 연구팀이 식물(왼쪽부터), 샤자린 박사, 알리 악타 박사.

## 윤대진 건국대 연구팀 가뭄 견디는 식물의 핵심 '전사조절인자' 밝혀냈다

건국대학교는 윤대진 글로벌식품스트레스연구소 연구팀이 식물(왼쪽부터)가뭄을 견디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사조절인자(transcription factor)의 활성화 메커니즘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물 과학 및 농업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New Phytologist (IF=8.3)에 1월 31일 온라인 게재됐다.

윤대진 교수(교신저자, 건국대 의생명공학과), 샤자린 박사(제1저자, 건국대 글로벌식품스트레스연구소), 알리 악타 박사(공동 제1저자, 건국대 글로벌식품스트레스연구소)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는 식물이 건조한 환경에 놓였을 때 가뭄 저항성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분석했다.

식물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식물은 ABA(압시스산)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이 신호를 전달해 기공을 닫고 수분 증발을 막는 방식으로 생존을 돕는다. /이현진 기자

# 화성특례시, 지역발전지수 '전국 1위'

지역경쟁력지수·주민활력지수 성과

화성특례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지역발전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지수는 ▲생활 서비스 ▲지역경쟁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4대 영역별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화성특례시는 이 가운데 지역경쟁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에

서 2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는 산업 기반, 소득 수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인구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속적인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인프라 확충,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성특례시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학원 수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발전지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93세 김순옥씨 등 570명 초·중 학력 취득

서울시교육청, 만학도 졸업식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일 서초구 방배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 570명의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67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초등, 중학 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가족과 지인 등 1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졸업생들의 성취를 축하할 예정이다.

졸업생 중 최고령자인 김순옥 학습자(93세)는 "중학교 공부를 간절히 원했지만, 살다 보니 기회가 없었다"

라며 "나이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후배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퓨전국악그룹의 전통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2024년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수상한 '세프와 낭디키(결혼이주여성)' 학습자의 자작시 낭송과 최고령 졸업생 김순옥 학습자의 답사도 예정돼 있다.

현재 서울시 내 1900여 명이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전년보다 문해교육 기관이 2개 늘어 총 69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농식품부, 5년 내 50개국 ODA 확대 협력국 식량안보·韓 농산업 경쟁력 ↑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 ODA 기반 해외진출 모델 10개 발굴 K-라이스벨트 확대, 쌀 증산 지원 농업 가치사슬 지원 자립 기반 강화 전담 조직 신설해 사업관리 체계화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농업 공적 개발원조(ODA) 협력국 수를 5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ODA에 기반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국제 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협력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전시포 운영, 홍보 등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식량원조 및 'K-라이스벨트' 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 참가국 고위 관계자들에서 가루쌀로 만든 전통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네갈, 감비아, 가나, 기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쌀 식량원조 사업은 지원 국가와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해 제도 정비, 생산 기반 구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참여 주체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전주기 기능별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해 사업 기획, 사업 관리,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전문화하는 국제농업 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정보화·교육, 성과관리 등 분야별 전문 지

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기획을 맡는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성과·평가 부문을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농업 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분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국의 농산업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하는 상생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제기구, 민간과 협력해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 연평균 농도 15.6 $\mu\text{g}/\text{m}^3$  기록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 $\mu\text{g}/\text{m}^3$ 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531개 도시 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15년(25.2 $\mu\text{g}/\text{m}^3$ ) 대비 38.1%, 전년(18.2 $\mu\text{g}/\text{m}^3$ ) 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 좋음'(일평균 15 $\mu\text{g}/\text{m}^3$  이하)인 날은 212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나쁨'(일평균 36 $\mu\text{g}/\text{m}^3$  이상)인 날은 10일로 역대 최소였으며, '매우 나쁨'(일평균 76 $\mu\text{g}/\text{m}^3$  이상)인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mu\text{g}/\text{m}^3$  범위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남이 12.3 $\mu\text{g}/\text{m}^3$ 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12.9 $\mu\text{g}/\text{m}^3$ ), 경남(13.0 $\mu\text{g}/\text{m}^3$ )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54.8%(35.4→16.0 $\mu\text{g}/\text{m}^3$ ) 감소했다. 이어 전남 50.4%(24.8→12.3 $\mu\text{g}/\text{m}^3$ ), 강원 50.0%(25.8→12.9 $\mu\text{g}/\text{m}^3$ ) 순으로 개선 폭이 컸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구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해 배출량을 제한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해 2024년까지 684곳에 보급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를 2020년 100만2000대에서 지난해 20만9000대로 79.1% 줄였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행해 2023년 97만6000대에서 지난해 82만2000대로 15.8% 감소했다.

생활 부문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 1만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이후 누적 148만대를 보급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지난해 1만553곳으로 확충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중국 동북부(베이징·톈진·허베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42.2 $\mu\text{g}/\text{m}^3$ 로 2015년(77 $\mu\text{g}/\text{m}^3$ ) 대비 45.2% 줄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거제 등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권익위, 소상공인 고충 수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민

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 "양자기술 산업 도입 기반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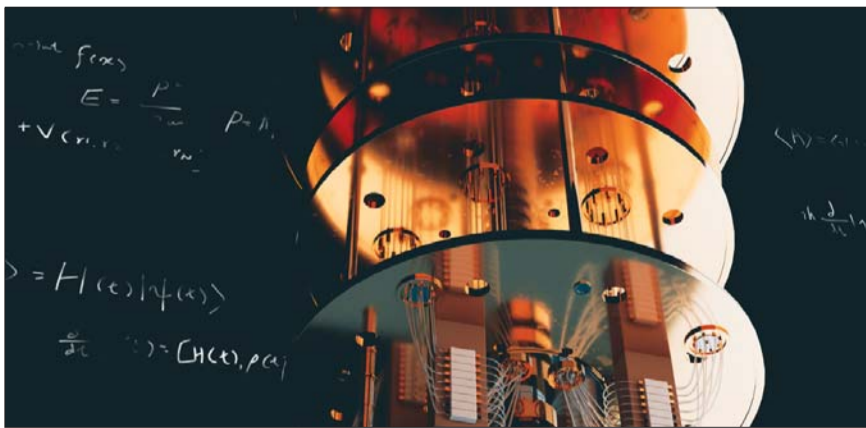
산업부,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개최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기 포럼 상시 운영... 정책 논의 지속 추진

산학연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물류·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포럼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양자컴퓨터 컨셉트 이미지. /유투이미지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업종에 특화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 논의됐다.

이러한 종합토론에서는 △단기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 필요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맞춤형 연구개발 편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양자

기술이 꿈이 아닌 현실의 기술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양자기술을 도입·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포럼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전, 전력망 적기건설 위한 조직개편 단행

"입지 갈등 조기해소에 총력"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전은 11일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해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력망확충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의 60% 이상이 입지 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되며, 이때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전력망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국가기간망에 해당하는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표본 사업기간 9년을 기준으로 입지 선정과 사업 승인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장기간 지연

되는 경우가 다수다.

현재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하 설비계획)에 따른 신규 전력망 사업의 71%가 입지 선정 또는 사업 준비 단계다. 한전은 작년 5월 제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서 기존 전력망 대비 송전선로 약 60%, 변전소 약 40%를 추가 보강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10차 설비계획의 신규 전력망 사업 대부분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큰 지역의 잉여 전력을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역간 전력연계를 위한 전력망 경과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부산시, 노인 일자리·건강문제 ‘한번에’ 해결

### ‘하하 건강파트너’ 본격 추진 건강센터서 ‘건강업 사업’ 지원 보건소·7곳 병원서 전문인력 양성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 일자리와 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쇠 예방 노인 일자리 사업 ‘하하 건강파트너’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42명의 건강 파트너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 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특화 사업으로 지역 밀착 건강 관리 기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마을건강센터의 노쇠 예방 사업인 ‘건강업사업’은 2023년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에는 마을건강센터 전역



하하 마을건강센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 모습. /부산시

으로 확대됐다. 시는 올해부터 마을건강센터에 ‘하하 건강파트너’를 배치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올해는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에 ▲하하마을건강센터 61곳 ▲건강생활지원센터 7곳 ▲공공·민간병원 7곳 ▲구·군 시니어클럽 15곳 ▲하하캠퍼스 건강센터 등 9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하하 건강파트너’는 일정 시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한 이후 마을건강센

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캠퍼스 건강센터로 배치된다. 이곳에서 마을건강활동가 등과 함께 ▲노쇠 검사 ▲건강업 프로그램 운영 ▲건강 소모임 운영·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와 7곳의 협력 병원에서 노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하 건강파트너’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시니어클럽 등 수행 기관은 참여자의 업무 지원과 관리를 돕는다.

한편 부산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지난해 기준 23.9%로 8개 특별·시 가운데 가장 높으며,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부산 노인의 사회적 고립, 의료 및 건강 관리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부산 시민은 노후 생활에서 건강과 소득의 위협에 크게 노출돼 있다. 노인 건강과 일자리는 노인의 빈곤 수준을 감당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며 이는 그 어떤 대도시보다 시가 신경 써야 할 사회적 정책적 의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이 마을에서 이웃끼리 서로를 돌보는 건강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부산 시민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지원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수니와칠공주 멤버 공개오디션 포스터.

### 칠곡군 ‘수니와칠공주’ 새 멤버 모집

세계 최고령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새 멤버를 모집한다.

지난해 10월 멤버 서무석(87)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는 3월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니와칠공주’는 평균 연령 85세의 할머니들로 구성된 래퍼 그룹으로, 한글을 배우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데뷔 이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새 멤버 선발을 통해 기존 멤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영덕군 소아청소년·산부인과 신속 진료

영덕군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양질의 필수요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1시간 이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료가 가능한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필수요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영덕아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와의 야간 연장 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장성군 배수개선사업 선정... 90억 확보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 황룡면 옥정리·황룡리 일대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 ‘황룡면 배수개선사업’을 제안해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됐다.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2곳과 배수문 1곳을 설치하고, 배수로 1.37km를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면적은 73헥타르(ha)에 이르며, 사업비 9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재정적 부담도 덜었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 경주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1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자동차 1175대, 수소자동차 65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보급사업은 상반기 821대(승용 600, 화물 210, 승합 11), 하반기 354대(승용 260, 화물 90, 승합 4)로 나눠 진행된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1210만원, 화물차 271~2435만원, 승합(중형) 1262~1억1276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경주(경북)=최지은 기자 asdadx@

## 광주시,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본격화 대구시, 초등 돌봄시설 9곳 확충

###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마무리 이달 말 사업 계획안 제출 예정 2029년 하반기 착공 계획

광주시가 대형 복합쇼핑몰 2곳이 동시에 들어서는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설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마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천상무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며 이달 말께 국토교통부에 사업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광천상무선’의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승인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추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이 진행된다.

광천상무선에 대한 정부 예산 등이



광주 도시철도. /뉴스시

수립되면 2029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2년 완공할 계획이다.

광천상무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광천권역과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연장 7.78km의 동서축 횡단 노선이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광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의 핵심 사업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1분기 내 4곳 개소 예정

대구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올해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틈새없는’ 돌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14곳에서 23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확충되는 센터 9곳 가운데 4곳은 이미 설치 완료돼 올해 1분기 내 개소 예정이며, 나머지 5곳은 올해 신규 설치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제한 없이 만6~12세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돌봄 이용이 가능하며, 숙제지도와 일상생활

교육 및 외국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돌봄시설을 활용해 등·하교, 야간, 주말 등 돌봄 사각시간에 만6~12세 초등학교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 돌봄 사업도 운영한다.

틈새돌봄 사업은 대구시에서 2021년부터 초·중·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형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돌봄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1곳에서 155곳으로 늘어나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느린학습자 아동지원 사업인 ‘틈새돌봄 성장상’ 프로그램도 신설될 계획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경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최적지 선정 경남도,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600억 투입

### 설립 최적지로 ‘포항시’ 최종선정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공약이 2년 만에 최종 설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도는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포항시가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최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적합성, 연구기반 충실성, 지자체 추진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번 용역에서 포항시는 저온기 평균기온, 아열대기후 진입도, 미래 기온변화 예측전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추진 의지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됐다.

용역보고서에 제안된 결과를 기초로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포항시와 공동으로 토지, 건축 등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경북 아열대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아열대연구팀 신설 등 기반 조성 연구기능 강화, 농가 교육 등 현장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가축 응급진료 동물병원 당번제 시행

경남도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기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방역 예산 6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통제 초소 운영 강화를 위해 예비비 5억 6000만원과 긴급 방역 재료비 1억 5000만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 사육 제한 및 질병 관리 ▲소규모 농가 소득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17개 사업에 169억원을 투입한다.

또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과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예방 약품 지원 ▲립프스킨 백신 접종 지원 등 17개 사업에 186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현장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 농장 주도의 책임 방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구제역 방어력 확보 예방 접종 지원 ▲CCTV 등 방역 시스템 설치 지원 등 15개 사업 15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가축 응급 진료 동물병원 당번제를 18개 시군에 시행해 휴일 진료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가축 긴급 도축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내수 부진에도 실적 ‘好好’... K푸드, 글로벌 ‘날개’ 달았다

## 지난해 식품업계 대부분 호실적

**CJ제일제당** 작년 매출 17.9조 해외식품 매출 5.6조, 비중 49% **대상** 영업익 47% 늘어 1820억 **오리온·풀무원** ‘3조 클럽’ 가입 **삼양식품** 영업익 133% 급증 **농심·오뚜기** 영업익 감소 예상



CJ제일제당의 파리 비비고 시장에서 K푸드를 주문하는 방문객들. /CJ제일제당



중국에서 소비자가 젤리를 구매하고 있다. /오리온

식품업계가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과 고환율 여파로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대체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해외에서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이에 업계는 올해도 내수보다는 해외에 사업에 비중을 두고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 매출 성장세 ‘3조 클럽’ 늘어나**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매출(대한통운 제외) 17조 8710억원, 영업이익은 1조 323억원을 기록했다.

식품사업부문은 전년 대비 0.8% 상승한 11조 3530억원의 매출과 5.3% 감소한 620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내수 소비 침체와 원가 부담을 겪고 있는 국내 식품사업 매출은 5조 7716억원으로 1.8% 감소했지만, 핫한 등 주요 가공식품의 견조한 성장과 온라인 채널 매출 확대가 사업의 부진을 일부 상쇄했다.

해외 식품사업은 매출 5조 5814억원을 기록하며 식품 매출 중 49.2%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 주력한 ‘K-푸드 신영도 확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북미, 유

럽, 호주 등 주요 권역에서 성장이 이어졌고, 글로벌전략제품인 김치(+38%), 냉동밥(+22%), 만두(+18%)의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상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3.6% 늘어난 4조 2544억원, 영업이익은 47.1% 증가한 1820억원을 기록했다. 알룰로스 등 전분당 스페셜티 사업 확대와 바이오 사업 시황 개선, 라이신 수요 증가 등이 대상 실적을 이끌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오리온과 풀무원은 새롭게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오리온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 1043억원, 영업이익 54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카카오, 설당 등 원재료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라 매출액은 6.6%, 영업이익은 10.4% 증가했다.

풀무원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 2137억원, 영업이익 921억원을 기록했

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4%, 48.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7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증가했다. 해외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두부 등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라면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해외 수출 효과로 인해 호실적을 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 7300억원, 영업이익은 34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각각 전년 대비 45%, 133% 증가했다.

농심과 오뚜기의 수익은 다소 아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농심의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3조 4668억원, 영업이익은 13% 줄어든 1806억원이다. 오뚜기는 1.4% 증가한 3조 5029억원의 매출과 5.8% 감소한 2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급변하는 시장변화 대응... 국내보다는 해외

식품업계는 올해도 환율 강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변화에 대응한 기능

성, 고부가가치 제품 출시와 함께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소바바치킨’에 이어 ‘통새우만두’ 등 국내 ‘메가 히트 상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 주 수폴스에 위치한 ‘북미 아시아인 푸드 신공장’과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헝가리 공장을 통해 ‘K-푸드 영도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도 식품사업부문의 글로벌화에 힘을 싣는다. 기존 주력하던 김치, 김 등 글로벌 확대에 주력하며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 글로벌 K-푸드 시장을 넓혀나간다.

대상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중국, 베트남, 미국, 뉴질랜드 등 30여개국에 김을 수출하고 있다. 대상의 수출 포함 지난해 해조류가공품 매출은 약 1530억원으로, 2020년(650억원)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김에 대한 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현지 공장 준공, 생산라인을 증설했다. 또 대상은 오프드(O’food)를 통해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라인을 론칭했다.

오리온은 미국, 중국, 호주, 유럽 등 수출을 적극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충청북도 진천의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5만 6000평 부지에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수출을 비롯한 국내외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라면 업계도 올 한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양식품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경남 밀양에 미주 시장 물량 납품을 위한 밀양 제2 공장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중국에 첫 해외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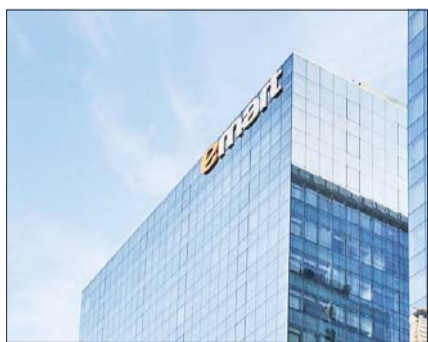
농심도 이에 질세라 미국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은 21.5%를 기록하며 일본의 도요스이산과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농심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매출을 1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의해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해외 사업 비중이 실적을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국도 다변화하고 현지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트레이더스 성장... 이마트 영업익 ‘흑자전환’ CJ프레시웨이, 고객사 위한 ‘맛있는 동행’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 471억 퇴직충당부채 등 일회성비용 반영 실질 영업익 3072억 늘어 2603억 트레이더스 영업익 59% 상승 924억



이마트 본사. /이마트

이마트가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성장세로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이뤘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47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40억원 개선해 흑자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매출은 29조 209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감소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회계상 인식된 퇴직충당부채와 희망퇴직보상금 등을 더한 2132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가운데 달성한 성과라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이를 제외한 이마트의 실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72억원 증가한 2603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의 고객 수 증가가 이마트 영업익 상승을 견인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트레이더스의 지난해 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실제 트레이더스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으로 전년 대비 59% 상승한 9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768억원으로

같은 기간 5.2% 증가했다.

할인점 이마트의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도 호실적을 이끌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이마트 방문 고객 수는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이마트 자회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e커머스 자회사인 SSG닷컴이 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 50억원 첫 흑자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345억 개선된 수치다. 이마트는 효율적인 프로모션, 광고수익 증가 및 물류비 절감 등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 역시 호실적을 달성했다. SCK컴퍼니는 지난해 연간 매출 3조 1001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넘어섰다. 연

간 영업이익은 전년비 510억 증가한 1908억원을 기록했다.

스타필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연간 영업이익으로 전년 대비 613억원 증가한 773억원을 기록했다. 조선히텔앤리조트 역시 연간 영업이익 4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성장을 이뤘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연간 영업손익을 전년 대비 538억원을 개선하며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했다.

이마트는 올해도 본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은 상품경쟁력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3곳의 신규 출점을 진행하고, 신규 점포 부지도 추가로 5개 확보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또한, 스타필드 마켓 죽전을 통해 선보인 몰타입 형태의 점포를 늘려 공간 혁신을 지속하고, 식료품을 상시 저가에 판매하는 이마트푸드마켓도 추가로 선보여 가격 혁신을 이어갈 예정이다.

SSG닷컴과 G마켓 등 온라인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에 나선다. SSG닷컴은 물류체계를 개편하고, 지방 권역의 새벽배송과 트레이더스의 당일배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별맥주·백억커피 등 30곳 홍보지원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유통고객사의 홍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맛있는 동행’을 통해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2023년 솔루션 사업 본격화 기조에 맞춰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 지난 해부터 본격 운영해 ▲금별맥주 ▲백억커피 ▲바른보쌈1990 ▲동백카츠 등 현재까지 30개 외식 프랜차이즈 고객사에 대한 홍보를 지원했다. 이들 고객사의 가

맹점 수를 모두 합치면 2000여 곳에 이른다.

‘맛있는 동행’은 외식 브랜드의 인지도와 가치를 높여 가맹점 확보 등 사업 성공을 돕는 동시에 고객사 락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동반성장 활동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사 90% 이상이 재계약을 체결해 CJ프레시웨이와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CJ프레시웨이가 자체 역량으로 고객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언론과 기업 공식 SNS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 대상 정원e샵 개편... 고객 편의성 ‘UP’

종합식품기업 대상은 공식 온라인몰 ‘정원e샵’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풍성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개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의 일상화로 유통·물류 비용 절감과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자사몰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온 ‘정원e샵’을 통해 일찍이 자사몰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그룹사 브랜드

제품은 물론, 다양한 외부 소싱 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식품 전문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화면 구성 최적화, 직관적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한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자사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용자맞춤형으로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신원선 기자

# 에이피알, 뷰티 디바이스·해외사업 호조... 11년 연속 성장

작년 매출 7228억, 영업이익 1227억  
전년대비 각각 38%, 18% 증가  
올해 독자 기술력 바탕 외형성장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상장 후 1년 만에 증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지난 2024년 연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7228억원과 영업이익 12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1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1년 연속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됐다. 앞서 지난 2021년 2591억원, 2022년 3976억원, 2023년 5238억원 등의 연매출을 올린 에이피알은 올해는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영업이익에서도 2023년 1042억원, 2024년 1227억원 등으로 2년 연속 1000억원대의 실적을 냈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와 해외 사업 성과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뷰티 디바이스 연매출은 3126억원으로 전체 연매출의 44%를 차지한다. 지난해 4분기에만 1034억원



에이피알은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각국에서 시장 진출을 활발히 했다. /에이피알

의 뷰티 디바이스 매출이 발생해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뷰티 디바이스 분기 매출이 1000억원 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표 제품인 '부스터 프로'는 단독 모델로서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넘겼고, 뷰티 디바이스 전체 제품군의 누적 판매량은 300만 대에 달했다.

부스터 프로 후속 제품으로 출시된 고출력 고주파 기술인 '홈 뷰티 디바이스'로 구현한 울트라 톤 40.68, 하이 포커스 샷 등은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 또 실속형 제품으로 선보여진 부스터 프로 미니는 가성비 중점을 둔 저연령대 소비자층의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처럼 뷰티 영역을 '뷰티테크' 분야

로 확장하고 있는 에이피알은 해외 시장에서도 K뷰티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

지난해 에이피알의 해외 사업 매출은 창립 후 처음 4000억원을 돌파했고 해외 매출 비중은 65%로 커졌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에이피알은 지난해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1분기 661억원, 2분기 771억원, 3분기 1741억원, 4분기 1520억원 등 총 4693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뤘다. 가장 큰 성과가 나타난 곳은 미국으로 매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의 매출 성장률이 나타났다.

기업 간 거래(B2B) 사업으로 신규 수출 국가 개척을 본격화한 전략도 주요했다. 에이피알은 동유럽, 남미, 중동 등에서 현지 총판 혹은 대리점, 유통사 등을 공략했다. 그 결과, B2B 사업 실적은 지난해 4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171% 급증했다. 에이피알은 해당 사업 규모가 올해 최소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올해도 독자적인 기술력과 자체 생산을 성장 기반으로 외형 성장과 매출 극대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최근 새로운 생산 기지 '에이피알팩토리 평택 제3캠퍼스'를 마

련해 신소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초석을 닦았다. 제3캠퍼스는 폴리테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DRN)와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전용 시설로 뷰티 디바이스 중심의 기존 제1, 제2캠퍼스와 차별화했다. PDRN을 자사만의 공법으로 직접 생산해 중간 유통 비용을 낮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e커머스 채널 시장에서도 에이피알의 자체 기술력이 경쟁력을 입증했다. 에이피알이 자체 구축한 뷰티 통합 플랫폼 '에이지알' 앱이 국내외 소비자 사이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 총 36개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에이피알은 올해 '에이지알' 앱에 쇼핑물 기능을 추가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모바일 환경에서 재구매율과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재차 썼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며 "조 단위 매출 뷰티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CJ올리브영, 로고 리뉴얼... 쇼핑환경 개선

'글로벌·오니채널' 방향성 제시  
피부진단 체험 서비스 등 계획

CJ올리브영은 브랜드 로고를 재단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새로운 브랜드 로고를 공개해 '글로벌'과 '오니채널'이라는 두 가지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다. 올리브영은 현재 해외에서 온·오프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국내에선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정조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워드마크형 로고인 '올리브영(OLIVE YOU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가시성과 가독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영은 올해 순차적으로 오프라



새로운 올리브영 로고가 적용된 매장 전경 조감도. /CJ올리브영

인 매장에 새로운 브랜드 로고를 적용하고 쇼핑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는 슬로 우에이징을 비롯해 올리브영이 제안하는 '심화' 뷰티, 피부 진단 체험서비스 '스킨스캔'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이번 브랜드 로고 개편이

글로벌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K뷰티 팬층을 지속 확대해 전세계인에게 올리브영이 '글로벌 K뷰티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컬리, '밸런타인데이 컬렉션' 기획전

770여개 상품 최대 72% 할인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밸런타인데이 컬렉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컬리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다이닝 밀키트, 디저트, 밸런타인데이 선물 등 770여개 상품을 최대 72% 할인가에 선보인다.

기획전에는 다양한 초콜릿과 디저트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아이돌 그룹 아이브와 협업해 '엠파시 티라미수' 제품을 선보인다. 바닐라 시트에 딸기시럽을 적신 후, 이탈리아 연성 치즈를 활용한 마스카포네 크림을 층층이 쌓아 올려 딸기 우유맛으로 구성했다는 컬리 측 설명이다.

이색 디저트도 준비했다. 초콜릿에 고민을 해소하는 메시지를 담은 '내 인



'밸런타인데이 기획전' 포스터 이미지 /컬리

생의 해답! 타로카드 초콜릿'과 함께, 오르골이 내장된 케이스에 초콜릿을 넣은 '로맨틱 뮤지컬턴 2종', '두바이 초콜릿 케이크' 상품 등을 함께 선보인다.

기획전을 통해 밀키트도 제공한다. 서래마을 이탈리아 레스토랑 '툼볼라'의 '블로네제 라자냐', 최현석 셰프의 '트리플 크림 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다는 컬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대웅제약, 펙수클루 등 혁신신약 성과... 역대 최고실적 경신

지난해 매출 1.2조, 영업이익 1638억

대웅제약이 펙수클루, 엔블로, 나보타 등을 핵심 품목을 앞세워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4년 실적으로 개별 기준 매출액 1조2654억원, 영업이익 1638억원, 영업이익률 13%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대웅제약이 2년 연속으로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모두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결과다.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 사업에서 860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34호 국산 신약 '펙수클루'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합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다. 펙수클루는 차세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출시 3년 차에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넘겼다. 제36호 국산 신약인 '엔블로'도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100억원을 넘겼다.

고순도·고품질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의 매출은 18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나보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에 달한다. 특히 나보타는 세계 최대 보툴리눔 독신 시장인 미국에서 미용 독신 시장 점

유율 13%를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섰다.

대웅제약 정통 대표 품목인 우루사는 962억원의 매출을 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올해는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을 위한 집중 투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게임스컴, 21일까지 참가사 모집

8월 20일부터 5일간 개최

독일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전시회 '게임스컴' 참가 신청 마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게임스컴은 매년 여름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게임전시회다. B2C·B2B 모두 개최되며, 글로벌 플레이어 호응과 비즈니스를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독보적인 플랫폼이다.

게임스컴 2025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B2B관은 22일까지 운영된다. 8월 19일 진행되는 전야제 게임스컴 ONL(Opening Night Live), 게임 업계 최대 관심사 게임스컴 어

위즈, 1일 조회수 3억 뷰를 기록한 온라인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을 다각도로 활용한 참가 옵션을 제공한다.

게임스컴 방문객 수는 매년 높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2024년도에 방문객 수는 1만 5000여명 증가해, 120개국 33만 5000명이 방문했고 B2B 방문객만 3만 2000명이었다. 특히 미국의 E3 개최 취소로, 북미 게임사의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편 매년 구성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관은 올해도 우수 강소기업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10<sup>th</sup>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애경케미칼, 담합금지 실천서약식... 공정거래 앞장

애경케미칼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애경타워에서 '담합금지 실천서약식'을 열고 임직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담합 근절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약서에는 담합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경쟁사와의 담합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경케미칼



JW중외제약, '세계 빈혈 인식의 날' 캠페인 전개

JW중외제약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JW사옥에서 '세계 빈혈 인식의 날'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2월 13일은 '세계 빈혈 인식의 날'로 JW중외제약은 임직원들에게 빈혈에 동반되는 위험성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JW중외제약



우아한형제들-기아대책, 나눔문화 확산 업무협약

우아한형제들이 국제구호개발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지난 10일 서울시 강서구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사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왼쪽)과 기아대책 박재범 미션파트너십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 딜로이트그룹, 배두용 리더 영입 (前 LG전자 CFO·대표이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국내 기업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통상 정책 대응을 위해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조직을 신설하고, 리더로 배두용(사진) 전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이자대표이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배두용 리더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국세청 조사국과 국제조세국에서 서기관으로 재직 후 2005년 상무로 LG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대외협력, 세무, 통상, 인수·합병(M&A), 해외법인 설립, 이전 등 해외법인 관리 분야 총괄 경험을 축적했으며 재무·통상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인사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임용 ▲편집국 자본시장부장 부국장 김민호 ◇승진 ▲전무이사 이정희 ▲편집국 유통&라이프부 부장대우 이세경 ▲편집국 정책사회부 차장대우 이현진 ▲편집국 편집부 차장대우 신혜영 ▲편집국 디지털콘텐츠부 과장 김천일 ▲경영지원실 과장 최은경 ▲경영지원실 과장 정예지
-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부사장 정인노 ◇상임이사 ▲기획전략이사 조영호
- ◆현대ADM바이오 ▲조두연 Medical 사업본부장

# “美 증시 투자핵심은 변동성 대응 ... 관세정책 변수”

## 인터뷰 |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

美 증시 방향, 트럼프1기 유사 전망 리서치센터 통해 차별화 정보 제공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영곤토스증권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은 서학개미(미국 증시 투자자)에 호재지만, 관세 정책은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2기 행정부의 미 증시 방향에 대해 “트럼프 1기 취임 초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정책은 초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의 정책 패턴을 보면, 초기에 강한 충격을 주고 이후 조율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며 “결국 시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 증시의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변동성은 경계했다. 최근 미국증시는 주가수익비율(PER)이 20배까지 높아진 상태다.

이 센터장은 투자 전략에 대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채권 투자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 국채와 우량 회사채는 현재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간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한국 증시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급등해도 한국 시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AI 반도체 섹터에서 미국 기업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

/토스증권

모습을 보여, 한국 투자자들도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강달러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 환차익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국내 증시 부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가 늘고 있다. 한국에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100조 원(68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는 1월 말 기준 167조 원(1138억 달러)으로 불어났다.

한편 토스증권은 최근 서학개미들에게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리서치센터가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미국 증시 분석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주목받는 하우스로 자리 잡았다.

리서치센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3명과 콘텐츠 매니저 2명이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콘텐츠 매니저는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분석 자료를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공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편집 및 발행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런던대에 장학제도 설립... 글로벌 혁신인재 키운다

런던대 SOAS 장학금 기부 계약 아프리카 학생 대상 인터십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SOAS)에 아프리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설립한다.

현대차그룹과 SOAS는 10일(현지시간) 런던대 SOAS 세넬트 챔버에서 ‘현대차그룹 장학금 기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SOAS는 런던대의 17개 단과대학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연구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SOAS와 ▲개발 리더십 대화의 장 연구소(DL



기아 영국법인 사이먼 헤더링턴 상무(왼쪽부터), 현대차&제네시스 영국법인장 애슐리 앤드류 상무, 현대차그룹 GSO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런던대학교 아담 하비브 총장, 엘리사 반 웨이엔버그 학장,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가 10일(현지시간) 런던대 SOAS 세넬트 챔버에서 ‘현대차그룹 장학금 기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D) ▲지속 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CSST)를 설립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부터 5년 동안 SOAS 내 아프리카 출신

장학금 수혜자는 학업 종료 이후 현대차그룹이 주최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및 세미나에 주기적으로 참여해 현대차그룹의 아프리카 협력모델 수립과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SOAS내 아프리카 출신 학사·석사급 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인터십’ 과정을 운영한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현대차그룹 GSO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은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장학제도를 설립하고, 아프리카의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성은 기자 ysw@

## 아모레퍼시픽, 신진 인문학 연구자 지원

‘장원 인문학자’ 5기 모집

아모레퍼시픽재단이 이달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아모레퍼시픽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장원(莊源) 인문학자 지원사업’ 5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은 인문학분야에서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진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로 5기째 운영되는 ‘장원 인문학자 지원사업’ 공모는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인문학(어학, 문학, 사학, 철학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논문이나 저서 형태의 연구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의무 요건은 없으며, 연구자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기간 내 연구를 이행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연구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단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최대 4년간 월 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청하 기자 mlse236@

## LG전자, 구성원 자녀에 입학 선물 전달

조주완 사장, 학교생활 응원 메시지를 고려해 올해부터 LG 그래프 노트북 외에도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지에 추가했다.

LG전자가 내달 초·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들에게 노트북, 학용품세트 등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 구성원들은 자녀 1명당 1회 자녀의 입학 시점에 맞춰 노트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018년생(초등학교), 2012년생(중학교), 2009년생(고등학교) 자녀 3000여명이 선물을 받는다.

LG전자는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

을 고려해 올해부터 LG 그래프 노트북 외에도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지에 추가했다.

LG전자는 노트북, 스탠바이미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 1500여명에게 학용품 세트, 운동복 등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추가로 전달한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사장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밝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기를 응원한다’ 등의 메시지를 담은 입학 축하 편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Toytron, Sunwoo&Company All rights reserved.



내동생은 천하무적

뮤지컬

# 반짝반짝 달님이

2025.02.07(금) ~ 03.02(일) 서울 상상나라극장

주최 | 이지기획 SUNWOO & COMPANY

제작 | BLUE MON STUDIOS 주식회사 지킴이

홍보마케팅 | ETC COMPANY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 입춘 즈음에 맛보는 매운맛



연운열의  
푸드특독

입춘(立春)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음력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해당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15°에 왔을 때를 말하며,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얼 동설한 추위를 이기고 돌아난 햇나물을 이용해 전통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12월 마지막 달을 절분으로 생각하고 입춘을 새해맞이로 구분하였다.

오신채(五辛菜)는 입춘일 절기에 맞추어 먹는 대표적인 절기음식이다. 오신채는 다섯 가지 매운맛이 나는 나물을 말한다. 오신채 종류로는 파, 당귀썩, 산갓, 미나리썩, 무썩, 파, 마늘썩, 달래, 부추, 유채 등 이른 봄철에 볼 수 있는 새순과 새싹들이다.

맛은 혀의 표면에 맛봉오리라고 불리는 무수히 많은 작은 돌기모양의 감각기관과 코 상부에 위치한 냄새 수용기 두가지 감각기관의 조합에 의한 현상이다.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특정 화합물질들에 의해 감각 수용기가 발현하고 이때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게 된다.

미각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냄새의 종류는 수 천가지가 넘는다. 딸기 맛은 혀에서 느끼는 맛이 아니라 딸기 맛을 구성하는 수많은 냄새 분자다.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게 될 때 냄새를 맡지 못하여 결국 입맛을 잃거나 맛을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매운맛은 인류 역사에서 독특한 감각으로 인식되어 왔다. 매운맛을 인지하는 과정은 신경 신호전달 경로에 따라서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써 구강점막을 활성화하고 통증신호가 전달체계를 통해 3차신경절, 척수, 대뇌 감각피질로 전달하게 된다.

매운맛을 일으키는 화합물의 화학적 구조는 이미 밝혀져 있다. 고추의 캡사이신, 후추의 피페린, 생강의 진저롤, 겨자나 와사비의 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 마늘의 알리신 등이 대표적인 매운맛 성분이다.

매운맛 화합물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생리활성 기능을 나타낸다. 캡사이신은 항염증 및 진통효과와 아디포넥틴 분비 촉진을 통한 혈당 조절작용, 진저롤은 COX-2 효소 억제제를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작용과 ROS(활성산소종) 제거 및 세포 사멸 유도효과, 피페린은 지방분해 효소 활성화 및 발열반응으로 체중 감량효과와 쓸개즙

분비 촉진 및 효소 활성화로 소화율 향상, 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글루타티온 S-트랜스퍼라아제 활성화로 발암물질 해독 작용을 나타낸다.

매운맛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스코빌 척도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코빌 척도의 원리는 캡사이신 농도를 당 희석배수로 환산한다. 순수한 캡사이신은 1600만SHU (Scoville Heat Units)로 나타내는데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라는 측정장비로 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등을 정량 분석하거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로 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같은 휘발성의 매운맛 화합물질을 분석한다.

최근에는 푸드테크기술을 이용한 '인공 전자혀'를 활용하는데 합성막 전극을 이용하여 맛의 패턴을 분석한다.

매운맛은 화합물의 구조적 특성과 생리적 매커니즘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현상이다. 캡사이신 패치(근육통 완화), 피페린 보조제(생체이용률 증가), 천연 방부제(아릴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항균 효과), 해충 퇴치용 캡사이신 유도체 스프레이 등 신경질환 치료제, 기능성 식품의 고도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식품기술사, 푸드테크 칼럼니스트

# 오세훈, 대권 출마로 또 시장직 내던지나



김현정  
(정책사회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일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여론을 떠보고 있다. 이번에 오 시장이 조기 대선에 나가면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준 서울시민을 두 번 저버리는 셈이 된다.

11일 오전 11시25분께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에 "저는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 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

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현재는 당연히 한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으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전날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면서 "대권이 보이나 '고장 난 차라도 일단 내가 타면 그만'이라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에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내려놓으라는 훈수까지 줬다.

오 시장이 SNS에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발언이나 쏟아내며 시정을 등한시한 탓일까. 그가 서울시의 수장으로 있

는 동안 시민 삶은 진장에 빠졌다. '2023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흡연율과 음주율까지 늘었는데도 오 시장은 지역사회 건강통계 발간사에서 "2023년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건강이 실천율이 증가했다"며 자신의 대표 포폴리즘 정책인 '손목닥터 9988'을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걸은 만큼 포인트를 주고 이를 서울페이 머니로 전환해 편의점 등에서 쓰게 한 정책인데, 돈을 뿌려대니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오 시장의 눈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손목닥터 9988'을 입력하면 가장 위에 뜨는 '손목닥터 9988 오류'라든가 지역사회 건강통계가 경고하는 시민 정신 건강 이상 조짐이 보이지 않나 보다.

/hjk1@

오늘의 운세 2월 12일 (음 1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만회하기 어렵다. 48년생 기다리던 물건이 오니 기쁘다. 60년생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보지 마라. 72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큰 이익을 얻는다. 84년생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



37년생 어려울 때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 49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펴 난갑하다. 61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73년생 보너스로 지갑이 두툼해지니 마음도 든든. 85년생 뱀띠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38년생 하늘에서 솔개나 날아다니는 기분처럼 즐겁다. 50년생 말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62년생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하게. 74년생 4시 지나 작은 성과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86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39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51년생 신세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63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75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한다면. 87년생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40년생 문서의 매개가 길하다. 52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풍이라도 준비. 64년생 공연한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76년생 팔자가 시작의 명수로 결실이 약하다. 88년생 기술로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도 받는다.



41년생 몸은 고달파도 재물은 들어온다. 53년생 과욕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65년생 흔한 성씨 김씨 중에 귀인을 찾는다. 77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인 인생. 89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42년생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 자연법칙 아니겠는가. 5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66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78년생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90년생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되지 말자.



43년생 과민한 반응은 일을 그르칠 수. 55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이익이 있다. 67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자. 79년생 세상의 반은 이성이니 삼각관계는 만들지 마라. 91년생 칭찬은 그래도 좀 주게 한다는 말이.



44년생 좀 더 일찍 일어나라. 56년생 전화위복의 계기가 생긴다. 68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는다. 80년생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다. 92년생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훌륭한 말은 할 수 있다.



45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라. 57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행운이 깃든다. 69년생 고생 끝에 낙이 있다. 81년생 연인에게 금전 기대를 접으면 내 마음이 편하다. 93년생 늦게 나타나는 성과로 마음이 즐겁다.



46년생 능력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다. 58년생 곁을 떠나는 사람은 잠시 마라. 70년생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라. 82년생 사랑과 돈을 같이 얻기는 매우 어려운 일. 94년생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47년생 어머니 살아 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59년생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71년생 하늘을 올려다보고 마음을 추스르자. 83년생 오후에 강남의 제비가 돌아오듯 기쁜 소식이 온다. 95년생 인(仁)이 없는 발산개세(拔山蓋世)는 하세일 뿐.



# 김상회의四季 신뢰와 변덕

필자의 신도 중 한 명은 뭐가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미루지 않는다. 약속도 그러하다. 한 번 약속하면 핑계를 대지 않는다. 약속해 놓으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성공은 재력적 또는 경력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스스로 대한 약속, 타인과의 약속도 사소한 이유로 반복하거나 미루지 않는 것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A 여인, 그녀는 유쾌하고 특히 해외여행을 가서도 여행자들보다 쉽게 친숙하며 대화를 즐긴다. 즉흥적 감정에 의해 그 순간의 기분으로 약속을 곧장 한다. 그런데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그사이에 감정변화가 생기는지 약속을 취소해 버리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니 친구들이나 지인들 사이에 신뢰가 약하고 신용을 얻지 못한다. 문제는, 그녀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어떠한 장애로도 늘 부딪히곤 한다. 그러면서 운 타령을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녀 스스로 자기에게 오는 좋은 기운도 변덕을 부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에너지의 법칙이 그러하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은 '신뢰'에 대해 "인의예지신(仁義禮知信)이라 하여 우도(友道)를 지탱하는 믿음(信)이 오류의 끝에 놓여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다. 이는 묵화토금수오행 중에 토수가 일정한 위치나 성질 없이 나머지 네 가지에 두루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앞의 네 가지 덕목을 다스려야 하니 오류 중에 믿음(信)이 맨 뒤에 있음이다. 인간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믿음, 바로 신뢰인 것이다. 상관이나 편관 칠살이 함께 있게 되면 좋을 때 좋다가도 그다음 날 언제 그랬더니? 하듯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조울증의 경향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1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경활성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와 알파벳을 추가했어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1	5	4	7
9	7	5		8	
7			2		
3		8			1
8				6	
2			9		4
	9				8
7		2	8	5	
9	1	8	7	6	2

7		6	9	5	4	1	
6	5		3				
9			5		3		
	3					2	
8	7			6	4		
1				8			
	8		7			3	
5	9	1		3	4		8

# 배민·요기요 입점 음식점 실태조사 두부제조업 소상공인 생계업종 추천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개최  
올해 업무추진계획 등 심의·의결  
연내 '동반성장 2.0' 발표하기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두부 제조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다. 동반위가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안에 '동반성장 2.0'도 새로 발표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2.0으로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도 주요 업무로 ▲동반성장 평가 개편 및 이슈 업종 확대 ▲자율갈등조정 기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4번째)이달과 동반위원장이 동반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강화를 통한 신(新)갈등 대응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지원 확대 및 ESG 정책 구심점 역할 수행 ▲지역·중소·소상공인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민간 주도 동반성장 문화 공진화 촉진을 전략과제로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개편, 플랫폼·금융권·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확대 등 동반성장 2.0을 마련해 동반위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는 평가기업의 지속 확대(56→241개사),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 등 변화의 필요성에 맞춰 평가 체

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영역, 공정회 등을 진행하고 평가방식, 업종분석, 지표개편 등 기업의 자발적 평가 참여와 실질적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방식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간 갈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 대상 범위를 업종 내·업종 간 사업영역,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정의 범위를 확대해 동반위의 갈등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울산에 창업 요람 '스타트업 허브' 오픈

정부예산 31억5000만원 투입  
오영주 장관 방문, 간담회 열어

울산광역시에 스타트업 요람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1일 오후 울산광역시를 방문,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하고 허브 입주기업 등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 4~6층에 마련한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31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존(4층),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존(5층), 스타트업 벤처투자존(6층)으로 꾸몄다. 허브가 자리잡은 종하이노베이션센터는 성공한 선배 기업가인 KCC정보통신 이주용 회장이 기부한 330억원을 포함해 총 532억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스타트업 허브 개관식에는 오 장관을 포함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회장 직무대리, KCC정보통신 이상현 부회장, HD현대중공업 노진울 사장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성공

한 선배 기업가가 후배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조성한 민관협력 혁신 창업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선배 기업가의 경험과 자산이 후배 창업가에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개소식 이후엔 울산에 있는 스타트업 6개사를 포함해 울산시, HD현대중공업, 지역 AC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요기업과의 협업 확대 방안, 비수도권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중견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 B2G(기업과 정부·공공기관간 거래) 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오 장관은 "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창업·벤처기업이 지역 내 수요기업과 협업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중기부도 스타트업의 협업을 확대하고 지역 창업기업이 겪는 규제·자금·관료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 중소 기술거래 활성화·혁신성장 돕는다

기보, 기술거래 기반사업 참여사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기보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기보는 기술거래 시장 내 수요·공급정보를 연계해 기술도입 희망 기업이 우수기술을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기술보유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에서는 연간 300개의 기술설명자료(SMK)를 제작해 기술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보유기관이 보유한 SMK를 기보의 기술거래 플랫폼에 공유해 기술거래가 이뤄질 경우 정보공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도 신선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기술도입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조성사업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KCC, 페인트 색상배합·조색 5분만에 '똑딱'

'KCC Smart 2.0' 신기술 선봬  
대리점서 색상구현 기술 상용화

KCC가 대리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현장에서 바로 페인트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상용화를 시작했다.

'KCC Smart 2.0'으로 명명한 신기술은 KCC가 2023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KCC Smar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11일 KCC에 따르면 2023년 3월 대리점에서 페인트 색상 배합 설계부터

실제 조색까지 공정을 최대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AI기반 색상 설계 시스템 KCC Smart를 개발해 대리점 경쟁력과 고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색상코드가 없는 색도 대리점 현장에서 바로 색을 측정(측색)하고, 조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KCC Smart 2.0'에 적용했다.

원하는 색상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어도 측색에서 AI측색기로 측정하면 'KCC Smart 2.0'으로 자동 입력되고, AI배합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색상 배합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CC페인트 대리점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색상코드 미상인 색을 페인트로 구현하기 위해선 여러 프로세스로 인해 평균 2~3일이 걸렸지만 'KCC Smart 2.0' 활용 시 5분여만에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을 바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KCC Smart 2.0'의 측색 기능을 활용해 이미 한 번 조색된 페인트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 대기업과 협업과제 수행 스타트업 모집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총 50곳... 사업자금 최대 1.2억 지원

대기업이 내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푸는 협업의 장이 올해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약 50곳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현대코퍼레이션과 협업한 창업기업인 시리에너지

는 현대코퍼레이션측에서 제공한 태양광 유리를 활용해 차세대 이차전지용 실리콘 소재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성공했다.

또 주식회사 두왓은 호반그룹과 협업을 통해 기존 솔루션과 연계해 체크인·아웃 및 결제 기능을 보유한 호텔형 키오스크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5 | 해짐 / 18:08

2월 12일 (수)  
음력 : 1월 15일

수도권 날씨  
0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기온: 연천 -2/3, 동두천 -2/4, 가평 -3/3, 파주 -3/3, 서울 0/4, 양평 -2/4, 인천 0/3, 수원 0/4, 용인 0/4, 평택 -2/4

백령도 3/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항공기 사고 잇따르는 美, 이번에는 공항 주경기장 경비행기 충돌...최소 1명 사망  
▲팔 자치정부, 유엔과 가자 재건사업 위한 8000만달러의 MOU체결 /사진 뉴시스

▲예멘 정부군, 석유산지 마리브에서 후티군과 교전...2명 죽고 부상병 다수  
▲세계 최대 빙산, 다시 움직이기 시작...펭귄 떼 죽음 우려

▲트럼프 국제원조처(USAID) 폐쇄에 연방 공무원·단체들 법원중지 소송과 시위  
▲러군 우크라이나 밤새 무인기 77대와 탄도 미사일 공격...키이우 등 폭격



내수 부진에도  
실적 '好好'  
K푸드, 글로벌 '날개'  
너



Life

에이피알  
뷰티 디바이스  
해외사업 호조  
L2



# '치약, 세제 아닌 약' 신념으로 韓 넘어 세계시장 문 두드린다

## FINEFRA

(주)제우MEDICAL



###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충국 제우메디컬 대표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기업’ 제우메디컬이 2012년 당시 파인프라(FINEFRA)치약을 처음 내놓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말했다.

1000원~2000원대 가격이 널려 있는 국내 치약시장에 10배 가량 비싼 개당(100그램 기준) 1만5900원 짜리를 선보였으니 어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런데 미쳤다고 평가했던 그 치약이 사방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파인프라 자사몰 후기에는 ‘11년째...’, ‘2016년부터 사용중’, ‘8년째 챙겨두고 쓰는 파인프라치약!’ 등 오래쓰고 있는 충성 고객들의 스토리가 즐비하다.

11년째 파인프라 치약을 쓰고 있다는 한 고객은 “40년간 소금으로 양치를 하시던 아버님도 지금은 파인프라치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파인프라치약은 ‘판치마켓’에서도 실시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참 감사하게도 소비자들께서 회사 홈페이지에 6000개가 넘는 후기를 작성해주셨다. 자사몰 기준으로 고객들의 재구매율은 84~86%에 이른다. 제품을 처음 출시하기 전에 마비스, 엘맥스, 덴티스테, 아조나, 투스프로 등 일본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치약들의 가격,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렇게해서 1만5900원이라는 판매 가격을 책정했다. 효과는 우리 제품이 외산 치약보다 더 좋다고 자부한다. (미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제우메디컬 본사에서 만난 김충국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가 창업한 제우메디컬은 주변의 싸늘(?)했던 시선을 무색하게 하며 제품 출시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비싼 치약’이 한국시장에서 먹혀들어간 것이다.

제우메디컬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약소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다. 그런데 구강질환은 OECD 국가가 중 가장 많다.

김 대표는 ‘치약은 세제가 아니라 약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파인프라치약을 개발했다. 그는 “우리 입안에는



제우메디컬의 파인프라치약.

파인프라 치약 재구매율 84%~86% 달해  
출시 첫해부터 흑자 기록, 지금까지 유지  
일 유학 중 급성치주염 겪고 기업가로 변신  
천연 유래 원료 사용... 치약 조성물 2건 특허  
코로나19에 무산된 日·美·中·EU 공략 재개  
키즈치약, 샴푸, 트리트먼트 등 라인업 확장

700여 종에 달하는 균 2억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뽕치’라고도 불리는 치주염은 입안의 균때문에 생긴다. 나쁜 균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치약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일본 유학시절 급성치주염을 심하게 앓았다. 입에 양파도 물어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잇몸을 찢어 피가 나게도 해봤다. 그만큼 잇몸 질환이 고통스러웠다. ‘고미술’을 공부하러 현해탄을 건넜던 그는 곧바로 치약을 만드는 벤처기업가로 변신했다. 당시 그의 나이 49세였다.

파인프라치약은 천연계면활성제와 천연에서 유래하는 원료를 사용한다. 8가지 유해성분은 아예 쓰지 않는다. 치약 조성물에 관해서 2건의 특허도 받았다. 파인프라치약으로 양치시 구강 전체에 형성되는 치면막은 세균 발생과 번식을 막는다. 입냄새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 의뢰해 2020년 나온 검사 결과에 따르면 파인프라치약은 입안의 대장균, 진지발리스균, 뮤탄스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을 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염과 충치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균은 자사의 치약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경쟁상대가 없는 고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는 그렇게 탄생했다.

일반적으로 충치는 20대 이전에, 치주염은 30~40대 이후에 많이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는 24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 제품으로)이론적으론 하루에 한번만 양치하면 된다(웃음). 그래도 건강을 위해 치약을 콩알 크기로 찢서 하루 세번 양치할 것을 권장한다. 잇몸이 상한 후에도 효과가 있지만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후 쓰셔도 좋다.”

제우메디컬은 2017년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해외시장 공략도 시작했다. 이후 유럽연합(EU), 중국, 미국에는 총판 계약을 체결해 시장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하려는 수출길을 막아섰다.

김 대표는 “법인까지 세웠던 일본은 매물비용이 무척 컸다. 미국, 중국 등도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고전했다. 이제 해외시장을 다시 공략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이 우선 대상”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미국 농무부 인증마크,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도 획득했다.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도 받았다.

김 대표는 치약에 이어 키즈 치약, 샴푸, 트리트먼트, 비누, 칫솔 등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장했다. 이들 제품 모두 치약과 같이 대부분 천연물질을 원료로 썼다. 그 사이 관련 특허는 6건으로 늘었다.

“고기능성 치약으로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한다면 나머지 품목도 1등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단헛던 해외시장 문도 다시 열어 볼 계획이다. 일본서 고전한 매물비용 등을 청산한 뒤에는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할 것이다. 국내 바이오시장에서 특허와 기술을 갖고 꾸준히 흑자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 치약 등을 통해 우리가 그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올해 설 연휴 궁궐·왕릉에 60만명 방문... 지난 해보다 6만명 늘어 /사진 뉴스스  
▲책으로 외로움 극복하자... 서울시, ‘마음여행 독서챌린지’ 시작

▲법원, 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신청 인용  
▲오타니 돈 빼돌린 전 통역사, 징역 4년 9개월형 선고 받아

▲황희찬의 올버햄튼, 英 FA컵 16강서 본머스와 대결  
▲‘투트쿠 복귀’ 흥국생명, 페퍼 완파하고 7연승 행진... KB손보 5연승